

2021 충청남도사회혁신센터 용역보고서

충청남도 거주 난민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2021. 6.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피난처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of refugees staying in  
Chungcheongnam-do

June 2021

HoTaeg Lee

Refuge pNan

## ■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피난처

책임연구원 이호택(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공동연구원 신승혜(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사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학회 홍보위원장)

연구보조원 강동훈(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문지혜(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오은정(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김희영(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충청남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국문 요약	-----	1
	영문 요약	-----	
제 1 장	서론		
	I. 연구목적	-----	10
	II. 연구내용	-----	14
	III. 연구방법	-----	17
제 2 장	충남 거주 난민의 현황		
	I. 신분 및 체류 실태 조사결과	-----	22
	II. 신분 및 체류 관련 정책제안	-----	29
제 3 장	언어와 문화생활		
	I. 언어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결과	-----	34
	II. 언어 및 문화생활 여건 개선 제안	-----	39
제 4 장	생계와 직장생활		
	I. 생계와 직장생활 실태조사 결과	-----	42
	II. 생계와 직장생활 여건 개선 제안	-----	49
제 5 장	교육과 학교생활		
	I. 교육과 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	-----	53
	II. 교육과 학교생활 여건 개선 제안	-----	62
제 6 장	주거와 보건환경		
	I. 주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69
	II. 주거환경 개선 제안	-----	73
	III. 보건환경 실태조사 결과	-----	75
	IV. 보건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안	-----	82
	V.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	88
	VI. 안전에 관한 제안	-----	91
제 7 장	참여와 사회관계		
	I. 참여와 사회관계 실태조사 결과	-----	99
	II. 참여와 사회관계 여건 개선 제안	-----	117
제 8 장	결론		
	I. 지역주민과 지역자산으로서 난민	-----	120
	II. 리빙랩 사업의 제안	-----	123

## <표 목차>

<표1-1> 조사대상(연구참여자) 인적사항	-----	17
<표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2
<표2-2> 충남 시군 외국인주민 현황	-----	23
<표2-3> 주요 출신국별 충남체류 등록 외국인 수	-----	24
<표2-4> 충남 지역별 난민통계	-----	26
<표2-5> 주요 난민발생국 출신 외국인 현황	-----	27
<표2-6> 조사대상난민 체류현황	-----	28
<표2-7> 난민 신청자 주요 출신국	-----	31
<표3-1> 개인별 한국어 구사 정도	-----	34
<표3-2>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	-----	35
<표3-3> 동거인과의 한국어 대화	-----	35
<표3-4> 한국어 교육 참여 의향	-----	36
<표3-5> 통역서비스 희망	-----	37
<표3-6> 선호하는 한국음식	-----	38
<표4-1> 현재 취업여부	-----	43
<표4-2> 월간 총 근로시간	-----	44
<표4-3> 난민 주당 근무시간	-----	44
<표4-4> 작년에 일한 직장의 수	-----	44
<표4-5> 월수입 현황	-----	45
<표4-6> 직장내 애로사항	-----	46
<표4-7>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 참여 현황	-----	48
<표4-8>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	-----	48
<표5-1> 충남 체류자격별 난민아동 현황	-----	54
<표5-2> 충남 연령별 난민아동수 증가추이	-----	55
<표5-3> 자녀 양육여부 및 학교이용 현황	-----	56
<표6-1> 주거형태	-----	69
<표6-2> 거주지 환경	-----	70
<표6-3> 주거비 정부지원 관련 현황	-----	71
<표6-4> 거주지 주변환경	-----	72

<표6-5> 충남지역별 의료기관수	-----	76
<표6-6> 건강검진관련: 취업여부, 성별과의 관계	-----	78
<표6-7> 생활스트레스 요인	-----	80
<표6-8> 의료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81
<표6-9> 코로나-19 검사실시여부 및 검사결과	-----	82
<표6-10> 시군별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	-----	82
<표6-11> 사회안전에 대한 충남도민 인식조사	-----	88
<표6-12> 한국생활 중 차별경험 유무	-----	90
<표6-13> 체류기간별 차별경험	-----	92
<표6-14>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의 사회적 참여여부	-----	92
<표6-15> 동족과의 의사소통 유무	-----	93
<표7-1> 동족간의 교류 현황	-----	99
<표7-2> 동족 및 가족과의 연락방식	-----	101
<표7-3> 한국사회와의 교류현황	-----	103
<표7-4> 고민상담 및 대인관계	-----	104
<표7-5> 단체활동 참여경험	-----	107
<표7-6> 한국시민권 취득 희망여부	-----	108

## <그래프 목차>

<그래프2-1> 충남 지역별 난민분포현황	-----	27
<그래프4-1> 충남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분포현황	-----	42
<그래프4-2> 행정구역별 전국 월평균 임금	-----	45
<그래프5-1> 지역별 난민의 아동현황(0-19세)	-----	55
<그래프5-2> 충청남도 연령별 난민아동증가 추이	-----	55
<그래프6-1> 충남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의료기관 현황	-----	75
<그래프6-2> 한국어교육 경험과 건강검진 실시유무	-----	86
<그래프6-3> 작업환경의 강도	-----	87
<그래프6-4> 사회안전에 대한 충남도민 인식변화	-----	88
<그래프6-5> 사회단체 참여율 비교	-----	95

참고 문헌	-----	126
-------	-------	-----

## <첨부 자료>

<첨부 1> 설문지(국,영문)	-----	128
<첨부 2> 설문지(아랍어)	-----	137
<첨부 3> 동의서(영문)	-----	146
<첨부 4> 동의서(아랍어)	-----	147
<첨부 5> 난민지원단체 협력기관 목록	-----	148

## 국 문 요 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주민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8%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사회가 된 충청남도에서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주자 등 자발적 이주자에 비하여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소외되고 계도화 되기 쉬운 비자발적 강제적 이주자 유형인 난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과 리빙랩 사업 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최근 우리사회의 난민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지역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실사된 바가 없음. 특히 난민은 이주민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한 어려움과 지역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 속에서 갈등의 요소로 발전할 우려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충청남도의 도민과 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문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착 지표인 RISE(Refugee Integration Survey and Evaluation)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착의 상황과 요인들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점을 예방할 수 있음. 따라서 2006년부터 2009년도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등 난민의 실태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사회혁신센터로부터 실태 조사를 의뢰받아 수행되었음.

### 2. 연구내용

- 2018년도 사단법인 피난처에서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실태조사를 위해 개발한 정착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는 10가지 영역으로 취업 및 재정, 교육훈련, 아동교육, 건강, 주거, 동족사회 결속, 정착지 사회 연결, 언어와 문화, 안전, 참여에서 32개의 지표를 사용하였음.
- 한국의 외국인거주현황, 난민입국현황을 조사하고, 난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의료기관, 직장 및 충남의 사회인식조사를 분석하였음.



- 충남에 거주하는 난민을 응답자로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2015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재정착난민과 미국 덴버 (Denver)시 및 캐나다 랭글리 (Langley)시에서의 재정착난민 정착척도와 비교하였음.
- 해외 사례는 이민의 규모, 역사, 사회통합제도의 내용과 다양성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조사하였으며, 해외 모범사례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과 해외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통하여 충남 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음.

### 3. 연구방법

- 충남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2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기초자료는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에서 수집하여 이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추가 분석하였음.
-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위하여 성별, 시군별 분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의 시점을 달리하여 수행하였음. 특히 난민가운데 언어나 문화면에서 가장 소외되고 계도화될 가능성이 큰 우려 그룹으로 예상되는 아랍계 난민을 주로 선정함.
-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사전에 배포하고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사전공유하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팀으로 편성하여 개인 및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함. 이 지역의 선행연구자료가 없어 질문에는 서열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조사하였고, 수집된 정보 정리 이후에서도 일상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화상 혹은 전화면담방식으로 추가 질의를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도록 노력하였음.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내 난민지원단체, 아동의 학교, 종교단체 및 지역 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조사기간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위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설문과 면접을 진행하였음.

#### 4. RISE 지표 및 설문지 구성개념

구성	조사영역	주요측정내용	질문형식
신분	체류	성별, 출신국, 중남체류기간, 체류자격, 결혼여부, 자녀 수	단일선택형
체류실태	1.취업	취업여부, 주당근무시간, 직장 수, 월수입, 직장내 애로사항 등	단일선택형, 다중척도형
	2.교육훈련	직업훈련, 한국어교육여부, 희망하는 교육 등	"
	3.자녀교육	교사면담경험, 아동의 학교생활관련,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
	4.건강	건강검진유무, 건강보험유무, 치과진료, 생활스트레스, 현재질병유무, 의료기관방문시 애로사항, 코로나-19 진단 및 결과 등	"
	5.주거환경	주거형태, 주거비지원여부, 주거환경, 대중교통이용여부 및 통근 시간 등	"
	6.소속과 정체성	동족간의 의사소통방식, 동족의 문화행사참여여부, 동족간의 소속감 등	"
지역사회와 소통	7.한국사회정착	한국인과 교류 현황, 한국생활정보교류방식, 한국문화참여현황, 고민상담, 한국인친구유무 및 한국가정방문경험 등	"
	8.언어와 문화	한국어 수준,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 여부, 가정내 언어사용, 자녀와의 의사소통, 한국어교육훈련 참가여부, 통역서비스 지원 및 한국음식과 관련된 사항 등	"
	9.안전	가정 내·외 안정감, 소방서 위치와 연락처, 범죄경험유무, 차별경험 등	"
	10.(사회)참여	단체활동 참여여부, 봉사활동 참여여부, 난민옹호관련행사 참여여부, 한국시민권획득 희망 등	"
기타	과거 경험	장래희망, 좋은 경험, 안좋은 경험	서술형
	제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서술형

## 5. 심층면접 주요결과

### ○ 언어와 문화생활의 실태조사 결과

- 한국어 사용 능력은 일상생활의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특히 필요한 요소로서 약 13명은 보통 이하이며, 5명은 간단한 문장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입국 2-3년까지 경과한 외국인 수준의 구사능력과 유사한 수준임.
- 영종도난민센터에서 약 7-9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받는 재정착난민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험은 많지 않고, 종교단체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종교 활동 참여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1명으로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의 운영기관 조차도 교육을 일시적으로 종료한 상황이라 비대면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 중에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 응답자는 8명이며, 가정 내에서는 모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15명으로 80% 이상임.
- 지역에서 한국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12명(응답자15명中)으로 높은 수준임. 필요시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응답자도 10명으로 과반수 이상임.

### ○ 생계와 직장생활의 실태조사 결과

- 생계를 위하여 취업은 중요한 수단이며,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불안정한 지위로 취업 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충청남도의 월평균 소득 345만원에 비해 난민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이 12명, 무직이 6명 등 취업률은 약 60%수준이었음. 남성의 취업률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취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 당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음.

- 안정적인 취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직장의 수를 확인한 결과 8명은 한 군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6명은 2-3번 직장을 옮겼음. 한 응답자는 일년에 네 차례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음.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간 이상인 경우 취업이 용이했으며, 세 명은 취업 경험이 없었음.
- 직장내 근무환경으로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은 11명이 언어문제라고 응답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지시나 동료간 의사소통에서 팀워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험한 작업환경이 애로사항으로 답한 응답자는 7명이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도민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 위험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서 기인함. 야근 등 작업시간, 현지인과의 업무 차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산업재해처리 한계, 임금 체불 등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나타났음.
- 추후 직업교육으로 희망하는 수업 분야는 한국어수업이 가장 높았고, (자동차)운전면허교육, 컴퓨터교육, 제2외국어(영어)교육, 자녀교육 등 본인의 재능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을 희망하였음.

#### ○ 교육과 학교생활의 실태조사 결과

- 1세~19까지 충남거주 아동의 난민신청자수는 총 52명, 인도적체류자수는 총1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응답자 중 가정내 보육 아동은 4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 이용 아동은 총 1명으로 미취학 아동 중 2명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재정지원, 높은 보육비의 부담, 부모의 구직, 건강문제 등으로 가정내 양육 중임.
-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한국인 친구가 있으며, 대부분 결석하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었음.
- 체류기간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서울이나 도심지역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주 초기에는 단절을 경험하나,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부모들은 그들의 아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음.
- 다만, 난민 아동을 교육하는 부모의 수가 적고 소수 언어 구사자가 거의 없기때문에 학교·유치원의 알림사항,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주거와 보건환경의 실태조사 결과

- 안전한 삶을 위해 주거 형태와 비용을 알아본 결과, 취업중인 난민의 경우 대부분 월25만원 수준의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 명의 응답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2,400만원의 전세로 시작하여 동 주택을 구입했음.
-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난민은 아무도 없었음. 다만, 조사 당시 직업이 없는 2명의 난민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 친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음.
- 주거환경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집주인이나 이웃과의 마찰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마찰 경험이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다소간 불편함이 있어 주로 1층에 거주한다고 함.
- 거주지와 그 주변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슈퍼마켓 이용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주거환경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지역에 아랍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평균 출퇴근 시간은 20여분 가량 소요되며 대부분 직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음.
- 충남지역에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000여 기관 이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천안, 아산, 논산 등 거주 난민의 수가 많은 지역에 의료기관의 수는 적정함.
- 건강 검진 시 애로사항을 알아 본 결과, 과반수 이상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심장질환, 신장결석, 요통, 복통을 호소하는 응답자가 있었음.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노동을 하거나 단순노무 종사자 등 작업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난민들은 요통, 복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의료서비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결과로서 추가건강검진이 필요한 진단결과를 받은 난민들의 대부분은 일자리 손실에 대한 위협적인 인식이 높아 재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경우는 약국의 처방약으로 치료받는 양상이었음. 치료비 걱정이나 병원의 위치 파악 등은 의료기관 이용의 애로사항에서 낮은 수준이었음.
- 질병의 이해도와 검진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검진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답변이 높게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보아 한국어 구사능력과 질병에 대한 이해관계에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임.

## ○ 참여와 사회관계의 실태조사 결과

- 한국사회문화참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난민의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충남 도민의 인식은 차별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6명은 때때로 차별을 경험한다고 함. 특히, 한국사회에 6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경우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일부의 반응은 난민들이 한국 문화와 지역의 민심을 맞추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출신국과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하고 동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결과, 출신국의 소식을 접하거나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동족과의 의사소통은 SNS,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는 한국인과의 관계성 확장 측면보다 동족간의 관계성 유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출신국별 차이는 없었으나, 사회적 참여도가 낮거나 혹은 동족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제한적인 난민의 경우 한국에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동족간의 결속력이 낮고 한국사회에서의 불안정한 지위가 그들의 출신국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을 넘긴 난민들의 경우 그들의 혈통이나 문화적 전통을 중시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에 더욱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됨.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 지역 자산으로서의 난민과 난민캠프

- 난민은 우리사회에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고 난민의 수용 및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난민들의 자산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난민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다양한 언어능력,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 노동시장 개혁 및 생산성 증진 동력,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라는 교유한 자산이 있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난민의 자산도 우리의 지역 자산이 될 수 있음.

- 소통과 혁신의 난민캠프를 통하여 난민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마을의 시설 보수, 농촌 활동, 봉사활동, 어학당 등 난민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혁신적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난민캠프를 리빙랩 사업으로 제안함.

#### ○ 지역 주민으로서의 난민과 난민 마을

- 난민의 궁극적인 통합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 직장,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 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다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이 현재 수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난민들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고 통합하기 위하여는 난민들이 지역주민과 경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난민문제 뿐 아니라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주민이 될 필요가 있음.
- 난민들이 농촌에 주거하면서 농업을 통하여 자신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공동체 마을을 개척함으로써 국민들이 떠나 공동화 된 농촌 지역사회를 난민의 일손과 자산으로 일으켜 세우는 리빙랩 사업으로 제안함.

# 제 1 장 서론



## I. 연구목적

### 1. 충남 거주 난민의 생활실태 조사

#### 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충남

행정안전부가 2020.10.29.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51,779,203 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그 4.4%인 2,216,612 명인데, 충청남도는 주민 인구 2,188,649 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5.8%인 127,057 명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금산, 논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농촌 지역에도 국제결혼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 는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15 개 시군(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특히 높은 시군은 아산시(9.30%), 금산군(7.70%), 당진시(6.30%), 논산시(6.20%), 천안시 동남구(5.80%), 예산군(5.50%), 보령시(5.20%) 등이다. 최근 국제이주는 자발적 경제적 이주와 비자발적 강제적 이주가 혼합이주(mixed migration)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역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 난민의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나. 충남 난민의 생활실태 파악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박해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자발적, 강제적 이민자 유형인 ‘난민’의 규모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생활실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한국의 난민실태는 사단법인 피난처가 주축이 되어 2004 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원), 2008 년(국가인권위원회 지원), 2010 년(법무부 지원) 3 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고,

---

<sup>1</sup>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019.11.1.기준) ,” 행정안전부, n.d. 2021 년 6 월 접속,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난민인정자(2018 년, 난민인권네트워크), 아동난민실태(2013 년,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체류자(2015 년, 사단법인 피난처), 재정착난민(2018 년, 사단법인 피난처)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었지만, 지역 단위의 조사 특히 충남지역에 관한 난민실태조사는 시행된 바가 없다.

난민법 제2조 1호는 1951년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난민으로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인은 난민법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 국가는 난민을 인정하기도 하고 불인정하기도 하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도 한다. UNHCR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제28항은 난민은 국가의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국가의 공식적인 난민 인정 이전이라도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순간 난민이 되는 것이며 국가의 난민 인정행위는 난민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난민은 난민 인정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심지어 난민 불인정자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엄격한 법적 의미의 난민을 가리키는 쉽지 않고 경계도 모호하다. 그리하여 난민의 체류실태를 조사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난민을 난민인정자에 한정하지 않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하고 심지어 난민불인정자 가운데도 귀국 시 박해의 우려를 절차상 주장하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2021 년 5 월 말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sup>2</sup>, 한국의 누적 난민신청자는 72,074 명이고, 주요 출신국은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네팔, 모로코, 시리아, 예멘 등이다. 난민인정자는 1,105 명으로 출신국은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부룬디, 이란, 예멘, 수단, 이집트 등이며, 인도적 체류자는 2,398 명으로 출신국은 주로 시리아, 예멘의 2 개 내전 국가이다

충남지역에도 난민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2018 년 제주도 입국 예멘 난민이나 2015 년 이후 전국의 폐차장이나 자동차 관련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기타 이집트나 모로코 등 아랍권 난민들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구소련 난민 등 우리와 다소 이질적인 언어 및 문화권

<sup>2</su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년 5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

출신의 난민들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충남지역 거주 난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 다. 난민실태 파악의 중요성

난민은 박해와 전쟁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타국에까지 피신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 이주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고, 생활상의 어려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체류기한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불가능하고 당분간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정주형 이주민이므로 난민의 소외는 간과될 수 없고 난민의 지역사회통합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사회에 정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채 계도화되는 지역주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가 드러나 있지 않은 난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 출신 난민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갈등으로 표출된 바 있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장차 난민의 수용을 둘러싸고 충남지역에서도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으로서의 난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수용을 둘러싼 소통과 통합의 과제를 분석하자 하였다.

## 2. 충남 거주 난민의 생활환경 개선 정책 제언

### 가. 생활 여건 개선 정책

난민은 여타 이민자보다 전반적으로 교육 기회나 노동 시장 참여의 기회가 적고 현재의 위치가 능력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많아 난민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빈곤, 사회적 배제 및 생활 조건에서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수단을 연구하여 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주민으로 존재하지만,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은 난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언어, 직장(취업), 학교(교육), 건강, 사회적 연결 등의 측면에서 난민의 지역 내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 나. 리빙랩 (Living Lab) 어젠더 발굴

생활실태 조사 결과와 해외사례조사 연구를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난민의 생활환경 개선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을 일반화하여 수행하기 전에 실제 생활 현장에서 새롭게 실험적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 : 일상생활 실험실) 사업주제를 몇 가지 제안하여 보았다.

특히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가 지향하는 사회혁신은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도민 체감형 어젠더로서, 충남지역과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적용,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는 부분과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부분과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특히 그 실태가 알려지지 않고 그 고충이 더 크다고 보이는 난민의 실태 파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충남의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하고 난민의 실태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그 대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밀착형 리빙랩 사업 제안을 시도함으로써 지속적인 충청남도의 지역발전과 난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기여 방안 연구

### 가. 난민의 자산 개발

난민은 단지 문제나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므로, 난민의 욕구와 자산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난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나. 지역의 내부 자산 활용

난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면서 지역의 난민지원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에 관한 기초 선(Base Line)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충남의 일상생활에서 주민으로 만날 수 있는 난민 역시 외부로부터 지워진 부담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 또는 내부자산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주민과 난민 간의 지역 내 상호 협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다. 다양성과 참여 극대화

난민의 정착에 관한 유럽의 조사연구 일반적 결론에 의하면, 난민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매우 다른 개인적 배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각 난민의 사회통합 과정은 개인별로 각각 다르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고, 동일한 개입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 동질 집단이라도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인식될 때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권고하므로<sup>3</sup>, 이 연구에서는 난민과 주민의 다양성과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내용

### 1. 충남 난민 생활 실태조사

#### 가. 정착 실태

충남 거주 난민의 생활실태를 신분 및 체류, 언어와 문화생활, 생계와 직장생활, 교육과 학교생활, 주거와 보건환경, 참여와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표는 취업 및 재정, 교육 훈련, 아동교육, 건강, 주거, 동족 간 결속, 정착지 사회 연결, 언어와 문화, 안전, 참여라는 10가지 지표로 측정되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통합의 지표는 취업, 교육, 언어, 사회적 연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은 정착민은 아니지만, 난민 역시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민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나. 사회문화 생활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체류(거주)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실태

---

<sup>3</sup> UNHCR (September 2013), A NEW BEGINNING, Refugee Integration in Europe, Outcome of an EU funded project on Refugee Integration Capacity and Evaluation (RICE), p.9 : <http://www.unhcr.org/52403d389.html>

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항목인 개인 특성(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능력, 한국 이민/입국 결정요인), 취업 경제 상태(월평균 소득, 송금 여부 및 규모, 저축 여부 및 규모, 국내 소비 규모, 연간 납세액 규모, 의료비 지출 규모), 사회문화 상태(자녀 양육 및 교육, 한국 생활 어려움, 사회적 차별 경험, 국내 체류 만족도, 인적 네트워크, 사회문화서비스 및 시설이용 경험, 이주민지원프로그램), 향후 체류 계획(예상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종료 후 계획,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의향, 정주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한국 이민 추천 의향) 등을 참조하되<sup>4</sup> 장기정착이민자와 구분되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 2. 다른 이민자 그룹과의 정착 척도 비교

### 가. 표준적 정착 지표를 활용한 비교

정착 지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정착의 서로 다른 상황과 요인들이 서로 다른 이민자그룹의 정착에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정착 척도를 비교하거나, 이민자 정착 관련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민자 정착 내지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일반 정책에 포함하여 주류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측정 방법이 상이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적 평가 틀로 지표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평가에 의하여 정착 척도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재정착 난민집단의 정착 척도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립과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지, 정착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재정착제도 및 정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수요는 무엇인지, 개별적 정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착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한국의 재정착난민과 해외사례 비교

사단법인 피난처에서는 2018년에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덴버(Denver)시와 캐나다의 밴쿠버 인근의 랭글리(Langley)시에서 표준적 난민정착지표로 사용한 RISE(Refugee Integration Survey and Evaluation) 지표를 사용하여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sup>4</sup>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0.12. 9.



미국 덴버(Denver)시 지역 RISE 조사는 10가지 영역, 곧 취업 및 재정, 교육 훈련, 아동교육, 건강, 주거, 동족 사회 결속, 정착지 사회 연결, 언어와 문화, 안전, 참여에서 32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점수를 합계하여 0-16은 낮음, 17-24는 중간, 25-44는 높음으로 평가하였는데 2011-12년도(2년간) 제1차 조사에서 14.6이던 기초 선이 2014-15년도(2년간) 최종연도에서는 30.2로 나왔다. 여러 영역 가운데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취업 및 재정, 정착지 사회 연결, 언어 및 문화에 관한 지식으로 판명되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에 위치한 랭글리(Langley)시에 2006-09년도(3년간)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 난민 정착조사는 랭글리(Langley)시에 정착한 난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랭글리(Langley)시가 새로운 주민들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 출국 전 사전교육, 2) 주거 상황과 주변 환경 (•가족 구성원 수와 거주지의 크기 및 방 개수,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현황, •주거지 주변환경과 이웃 주민의 안정성), 3) 고용과 소득 안정성(•입국 전 경력, •정규직 종사 여부 및 취업 기간, •정부 지원 수혜 여부, •재정착난민 정부 지원금 상황 여부), 4) 언어(•영어 사용 빈도, •영어 교육 제공 기관), 5) 보건, 6) 지역사회 참여, 7) 종교와 체육활동, 8) 학교생활, 9) 자원봉사활동 참여, 10) 정보제공과 지원, 11) 국적과 소속감 등을 조사하였다.

이번 충남 난민 실태조사에서는 충남 난민의 생활실태를 정착척도의 면에서 미국 덴버(Denver)시와 캐나다 랭글리(Langley)시에서의 재정착난민정착척도 및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척도와 비교하는 한편 충남지역 난민의 고유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국제적 정착지표 조사와 함께 충남지역 난민에 고유한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해외 사례는 이민의 규모나 역사 그리고 사회통합제도의 내용과 다양성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를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 해외 모범사례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과 해외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통하여 충남 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짧은 시간 안에 충남지역 전역에 흩어진 난민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20 사례 정도의 한정된 난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생활실태의 단면들을

들여다보았다. 충남 전역에 분포된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의 신분별 지역별 표본을 고르게 추출하기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된 난민인정자보다는 아직 지위가 불안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난민들의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들 가운데 난민들의 의지나 능력에 관련된 주관적 측면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시스템이나 수용하는 사회 측면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들은 부수적으로만 고려하였다.

정착의 요소를 기회, 자립, 통합으로 볼 때, 기회의 보장은 국가가 난민들에게 난민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진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객관적 시스템 영역이며, 자립영역은 난민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자활하고 유지하는 주관적 의지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통합은 충남도민과 난민이 서로 어우러지고 융합하는 상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자립이나 사회통합 중 난민의 의지와 능력에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설문조사

충남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2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기초자료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에서 수집하여 이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였다.

현재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난민 20명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1> 조사대상(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번호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충남체류기간 (개월)	체류자격	결혼여부	자녀수 (성별)
1	남	예멘	논산	84	G1-5	미혼	-
2	여	모로코	아산	24	G1-5	결혼	1(딸)
3	남	예멘	아산	24	G1-5	결혼 (2번)과 부부	1(딸)
4	남	아프가니스탄	천안	3	G1-5	미혼	-
5	남	예멘	논산	3	G1-5	미혼	-
6	여	모로코	예산	1	G1-5	미혼	-



7	남	예멘	예산	2	G1-6	미혼	-
8	여	이라크	홍성	36	G1-5	결혼	1(딸)
9	남	예멘	논산	48	G1-5	미혼	-
10	남	예멘	논산	96	G1-5	결혼	-
11	여	시리아	홍성	60	G1-6	결혼	2(아들)
12	여	이집트	아산	14.4	G1-5	결혼	1(아들)
13	남	이집트	아산	14.4	G1-5	결혼 (12번)과 부부	1(아들)
14	남	예멘	논산	48	G1-6	미혼	-
15	남	이집트	논산	48	G1-5	결혼	2(아들) *본국에 거주
16	남	예멘	천안	36	G1-6	결혼	1(딸) *본국에 거주
17	남	아프가니스탄	논산	24	G1-5	미혼	-
18	남	파키스탄	보령	48	G1-5	미혼	-
19	여	민주콩고	당진	14	G1-5	미혼	-
20	남	터키	홍성	60	-	미혼	-

## 2. 자료수집의 객관성

### 가.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

면접은 2021년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단답형으로는 단일선택형, 3척도형, 다중척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 등 3개 국어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결과의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설문지 구성도 각각 3개국 언어로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이후 응답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정리 요약한 이후 단계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화상 혹은 전화 면담방식으로 추가질의를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도록 노력하였다.

### 나. 응답자 모집

전체 응답자는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가운데 언어나 문화면에서 가장 소외되고 계도화될 가능성이 큰 우려 그룹으로 예상되는 아랍계 난민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터키 출신 난민도 포함되었다. 난민의 모집이 비교적 쉬운 한국어 교실을 지원하는 지역단체와 직장을 거점으로 하여 응답 대상자

를 모집하였다. 통계상 나타난 난민의 시군별 분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응답자들을 도내 전체 분포 지역으로부터 고르게 발굴하지는 못하였다.

난민들의 생활여건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지역 및 숙소 인근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였고, 그들이 더욱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수집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 다. 설문결과 측정

충남지역의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이 지역의 선행연구가 없어 질문에 서열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어와 문화생활, 생계와 직장생활, 교육과 학교생활, 주거와 보건환경 및 참여와 사회관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는 서열측정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수집된 응답 인원은 총 20명이다. 20명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으나 무응답자가 있거나 해당 없는 질문의 경우 배제한 나머지 숫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제5장 교육과 학교생활의 경우 자녀가 없는 미혼 응답자는 본 항목을 조건부 질문으로 지정하였고, 결혼하여 한국에 자녀를 둔 응답자가 4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충남지역 난민 아동의 생활실태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충남에서 자녀 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면접 시 난민들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13건의 사례로 개별 작성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지역사회로부터의 도움 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에는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난민 아동의 문제들 - 즉, 가정 내 방임, 정체성 혼란 및 아동 학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도 언급하였다.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모두 설문에 응대한 2가구(2,3번 응답자와 12,13번 응답자)의 경우는 제5장 아동과 학교생활 부분에서는 공통의 자녀에 관한 문제이므로 각 각의 개별 사안으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7장 참여와 사회관계 부분에서는 부부라도 서로 다른 답변이 가능하였으므로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각 각의 답변으로 처리하였다.

#### 라.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의 협력

현지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난민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 우려하는 문제의식과 계토화에 대한 인식과 우려, 소통과 협력 문제와 과제 인식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여건개선에 필요한 정책제안 사항을 정리하고자 지역 내 난민지원단체, 아동의 학교, 종교단체 및 지역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전국적 차원의 조직과 별개로 충남지역 차원의 난민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원활한 도움을 주었던 이주민(난민)지원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단계에서는 미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응답자 이외의 난민가족, 난민 대상 교육 및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및 법인, 충남지역의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 시민단체들에 대한 확대조사도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2장 충남 거주 난민의 현황

## I. 신분 및 체류 실태 조사결과

### 1. 충청도의 외국인 난민 현황

#### 가. 외국인 주민 현황

2020.10.29.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2019 외국인 주민 현황’ 의하면<sup>5</sup>, 우리나라 인구 51,779,203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는 그 4.4%인 2,216,612명인데, 충청남도는 전체 주민 2,188,649명 가운데 127,057명이 외국인 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평균 4.4%를 초과하는 5.8%에 이르러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관한 통계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포함한다. 외국인 주민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례 등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표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9.11.1. 현재

구분	총 인구수(명)	외국인 주민수(명)	비율(%)
전국 (계)	51,779,203	2,216,612	4.3
서울특별시	9,639,541	465,885	4.8
부산광역시	3,372,692	77,968	2.3
대구광역시	2,429,940	53,023	2.2
인천광역시	2,952,237	130,292	4.4
광주광역시	1,489,730	43,053	2.9
대전광역시	1,498,839	34,148	2.3
울산광역시	1,143,692	37,284	3.3
세종특별자치시	338,136	9,814	2.9
경기도	13,300,900	720,090	5.4
강원도	1,520,127	38,504	2.5

<sup>5</sup>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019.11.1.기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충청북도	1,629,343	74,880	4.6
<b>충청남도</b>	<b>2,188,649</b>	<b>127,057</b>	<b>5.8</b>
전라북도	1,807,423	62,151	3.4
전라남도	1,787,543	68,719	3.8
경상북도	2,668,154	104,596	3.9
경상남도	3,347,209	134,675	4.0
제주특별자치도	665,048	34,473	5.2

충청남도 15개 시군(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시군은 아산시(9.3%), 금산군(7.7%), 당진시(6.3%), 논산시(6.2%), 천안시동남구(5.8%), 예산군(5.5%), 천안시(5.3%), 보령시(5.2%) 등이다.

<표2-2> 충남 시군 외국인주민 현황

2019.11.1. 현재

구분	총 인구수(명)	외국인 주민수(명)	비율(%)
<b>충청남도(계)</b>	<b>2,188,649</b>	<b>127,057</b>	<b>5.8</b>
천안시	679,743	35,781	5.3
천안시동남구	279,153	16,167	5.8
천안시서북구	400,590	19,614	4.9
공주시	109,877	4,286	3.9
보령시	99,320	5,116	5.2
아산시	347,032	32,271	9.3
서산시	175,204	8,369	4.8
논산시	122,111	7,610	6.2
계룡시	41,153	503	1.2
당진시	169,171	10,674	6.3
금산군	54,442	4,201	7.7
부여군	65,337	2,830	4.3
서천군	51,826	2,487	4.8
청양군	30,783	1,388	4.5
홍성군	102,791	4,658	4.5
예산군	78,963	4,363	5.5
태안군	60,896	2,520	4.1

## 나. 체류외국인 현황

법무부에서는 연도별, 분기별, 월별 체류 외국인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 체류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다.

2021년 3월 말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sup>6</sup> 국내 체류외국인은 1,999,946명이고, 등록외국인은 1,106,502명이다. 등록외국인(1,106,502명)은 권역별로 수도권에 660,647명(59.7%)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02,370명(18.3%), 충청권 120,473명(10.9%), 호남권 83,672명(7.6%)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62,389명(5.6%)이다.

충남체류 외국인의 주요 출신국은 베트남, 한국계중국인,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타이, 카자흐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일본, 스리랑카, 몽골 등이다.

<표2-3> 주요 출신국별 충남체류 등록외국인 수 (기준일 2021년 3월말, 단위:명)

국가명	합계*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총합계	62,389	198	1,921	2,063	3,715	5,272	2,741	1,094	3,942	1,269
베트남	11,789	33	532	623	608	750	1,109	219	636	478
한국계 중국인	10,512	25	148	64	153	1,208	153	53	1,011	39
중국	7,141	33	319	158	191	685	208	68	687	143
우즈베키스탄	4,512	1	55	247	225	307	45	20	150	4
네팔	4,246	9	213	208	276	458	234	194	151	57
캄보디아	3,938	13	156	308	794	201	165	168	89	35
태국	2,539	15	46	74	266	247	133	127	108	23
카자흐스탄	2,321		3	5	273	146	1	43	142	
필리핀	2,149	10	75	96	168	182	74	71	141	102
인도네시아	2,042	3	58	73	91	174	264	27	137	199
미얀마	1,558		98	29	105	169	47	32	29	10
일본	1,284	5	25	33	45	45	23	26	47	13
스리랑카	1,160		31	30	79	228	99	9	43	63
몽골	1,039		13	37	58	38	14	4	155	3
러시아(연방)	946	4	4	3	83	94	4	4	59	
미국	823	10	40	8	11	35	12	7	52	6
키르기즈스탄	537	1	3	1	16	47	7	3	28	

<sup>6</su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18879389586100](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18879389586100)

방글라데시	495	5	29	17	15	83	1	4	47	2
타이완	487	2	25	10	40	12	33	1	30	23
말레이시아	307	1	2		8	6	29		39	
파키스탄	275	1	4	6	43	34	21		14	4
인도	266		8	2	8	12			6	
우크라이나	216	1			20	3	1		10	
티모르민주공화국	191	1		6	23	5	36			57
한국계 러시아인	147			1	3	7			8	1
이집트	104			2	13	26	4		3	

국가명	합계*	아산	예산	천안동	천안서	청양	태안	홍성
총합계	62,389	16,363	2,001	7,581	10,019	605	1,345	2,260
베트남	11,789	1,833	376	956	2,246	169	698	523
한국계 중국인	10,512	2,847	301	1,885	2,234	40	126	225
중국	7,141	1,690	130	1,257	1,254	31	124	163
우즈베키스탄	4,512	2,317	73	532	472	10	6	48
네팔	4,246	736	247	474	445	95	25	424
캄보디아	3,938	734	212	294	460	80	30	199
태국	2,539	548	146	197	461	18	20	110
카자흐스탄	2,321	1,277	47	221	112	5	3	43
필리핀	2,149	428	102	201	327	46	48	78
인도네시아	2,042	386	62	174	192	21	104	77
미얀마	1,558	415	127	117	291	22	6	61
일본	1,284	503	5	248	204	16	7	39
스리랑카	1,160	196	33	97	170	4	73	5
몽골	1,039	211	25	202	230	2	16	31
러시아(연방)	946	438	18	89	98	1	9	38
미국	823	332	10	73	198	4	6	19
키르기스스탄	537	261	14	38	97	1		20
방글라데시	495	105	8	51	109	15		4
타이완	487	99	20	85	65	8	13	21
말레이시아	307	147		30	7			38
파키스탄	275	50	2	50	40	3		3
인도	266	70	1	89	67		1	2
우크라이나	216	147	6	20	7			1
티모르민주공화국	191	32	2	4	7	4	12	2
한국계 러시아인	147	80	2	12	20			13
이집트	104	42	3	8	2			1

\*합계는 16개 군의 총 합산 등록외국인수임.



## 다. 난민현황

2021 년 3 월 말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에 의하면,<sup>7</sup>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는 18 명, 난민인정자의 가족 1 명, 난민신청자 1,801 명, 인도적 체류자 101 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13 명으로 난민관련자 총 1,934 명은 충남도에 등록된 외국인 62,389 명의 3.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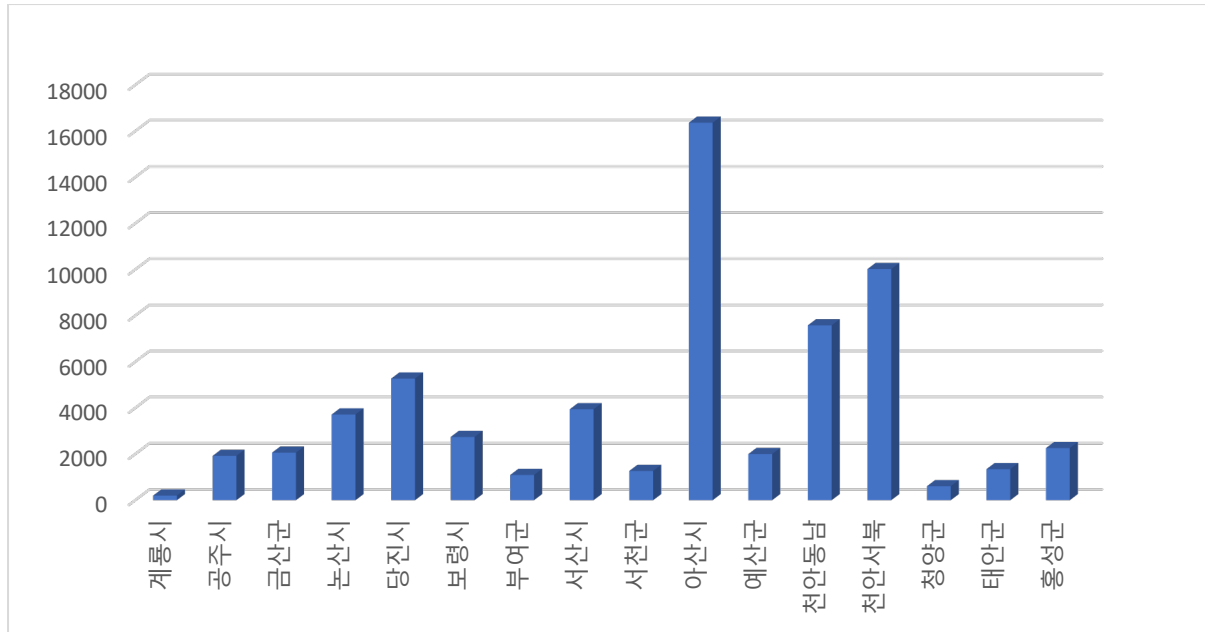
<표2-4> 충남 지역별 난민통계

2021.3.31. 현재

시군구	등록외국인 수(명)	F2-04 (난 민)	F1-16 (난민가족)	G1-05 (난민신청)	G1-06 (인도적체류)	G1-12 (인도가족)	난민합계
계	62,389	18	1	1,801	101	13	1,934
계룡시	198			1			
공주시	1,921			4			
금산군	2,063			9	7	1	
논산시	3,715			326	17	1	
당진시	5,272			208	6		
보령시	2,741	5		41			
부여군	1,094			46			
서산시	3,942	3		133	22	3	
서천군	1,269			3			
아산시	16,363	7	1	527	13	3	
예산군	2,001			34	10	2	
천안동남	7,581	3		195	13	2	
천안서북	10,019			154	8		
청양군	605			3			
태안군	1,345			17			
홍성군	2,260			100	5	1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난민발생국 출신의 충남 거주 외국인은 이집트, 예멘, 모로코, 시리아, 터키, 알제리, 타지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말리,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sup>7</su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지역별현황(2021 년 3 월말 현재)-지역별 세부체류자격별 현황’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18879551401100](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18879551401100)



<그래프2-1> 충남 지역별 난민분포현황

출처 : 통계청. 지역별 난민통계를 근거로 재구성(2021.3.31. 일 기준)

<표2-5> 주요 난민발생국 출신 외국인 현황

2021.3.31. 현재

	합계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동남	천안 서북	청양	태안	홍성
외국인총계	62,389	198	1,921	2,063	3,715	5,272	2,741	1,094	3,942	1,269	16,363	2,001	7,581	10,019	605	1,345	2,260
중동난민합계	424	2	3	13	57	45	4	1	40	0	125	15	48	37	1	3	30
이집트	104			2	13	26	4		3		42	3	8	2			1
예멘	54				10	6			11		12	3	8	4			
모로코	52	1		1	9	6			7		12		4	11			1
시리아	47			8	8				12		2	9	3	1			4
터키	45	1			3	2					8		6	6		3	16
알제리	26				1	1			3		14		3	3			1
타지키스탄	25			1	2	1		1	1		17			1	1		
이란	20		2		1				1		5		6	5			
사우디 아라비아	10				1								6	3			
말리	10					3					5		2				
아프가니스탄	7				7												
튀니지	6		1	1	1				1		1		1				
이라크	5																5
요르단	4										4						
수단	4				1						1						2
리비아	2										2						
팔레스타인	3								1				1	1			

## 2. 조사대상 난민의 신분 및 체류상태

### 가. 조사대상난민 체류현황

전체 20명의 응답자 가운데 성별은 남자 14명 여자 6명이다. 출신국은 예멘 8명, 이집트 3명, 모로코 2명, 아프가니스탄 2명, 시리아 1명, 이라크 1명, 파키스탄 1명,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1명, 터키 1명이다.

거주지는 논산 7명, 아산 4명, 홍성 3명, 예산 2명, 천안 2명, 보령 1명, 당진 1명이다. 총남거주기간은 1개월부터 8년까지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34.4개월(약 3년)이다. 체류 자격은 대부분 난민신청자(G1-5)이고, 인도적 체류자(G1-6)가 4명이다. 한 명은 난민인정이 불허된 이후 체류 자격 없이 출국기한만을 유예받고 있다.

<표2-6> 조사대상난민 체류현황

번호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총남체류(월)	체류자격
1	남	예멘	논산	84	G1-5
2	여	모로코	아산	24	G1-5
3	남	예멘	아산	24	G1-5
4	남	아프가니스탄	천안	3	G1-5
5	남	예멘	논산	3	G1-5
6	여	모로코	예산	1	G1-5
7	남	예멘	예산	2	G1-6
8	여	이라크	홍성	36	G1-5
9	남	예멘	논산	48	G1-5
10	남	예멘	논산	96	G1-5
11	여	시리아	홍성	60	G1-6
12	여	이집트	아산	14.4	G1-5
13	남	이집트	아산	14.4	G1-5
14	남	예멘	논산	48	G1-6
15	남	이집트	논산	48	G1-5

16	남	예멘	천안	36	G1-6
17	남	아프가니스탄	논산	24	G1-5
18	남	파키스탄	보령	48	G1-5
19	여	민주콩고	당진	14	G1-5
20	남	터키	홍성	60	-

## II. 신분 및 체류 관련 정책제안

### 1. 난민신청자의 신분과 난민인정

#### 가. 난민인정률 제고

(1) 충남지역 거주 난민관련자는 1,934 명 가운데 신분과 체류가 안정된 난민인정자는 18 명(난민인정자의 가족 1 명)에 불과하고, 비교적 체류가 안정된 인도적 체류자 101 명(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13 명)을 제외한 1,801 명은 체류가 불안한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난민신청자의 신분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면 박해의 위험이 있는 출신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불안한 지위이다

(2) 하지만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 년 5 월 현재까지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2.8%, 인도적 체류를 포함하면 9.0%의 보호율에 머물고 있다. 특별히 2021 년 한해 동안의 난민인정률은 0.3%, 보호율은 0.9%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sup>8</sup>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재신청을 반복하거나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여 피폐한 삶을 살수밖에 없으므로 난민인정률을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90 개국의 최근 18 년(2000~2017 년) 평균 난민인정률은 29.9%, 보호율은 44.2%이다. <sup>9</sup>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국제수준에 큰 격차를 보인다.

<sup>8</su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년 5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8.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

<sup>9</sup> 심영구, "[마부작침] '난민 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최초 공개 대한민국 난민 보고서 ①", SBS, 2018.7.7.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8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8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난민인정률이 낮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2010 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63.8%의 사람들이 난민불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sup>10</sup> 그러므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불안하고 피폐하게 할 뿐 해결책이 아니다. 난민 인정은 지방의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결정을 움직이는 것은 지방의 여론이다. 난민 수용에 관한 충남지역의 인식개선과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4) 현재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는 전국의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외국인 보호소 포함)에서 가능하지만 난민심사와 결정은 7 개 거점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3 개 보호소 (화성, 청주, 여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거점사무소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다.

## 나. 난민제도 남용방지

(1) 난민인정률이 제고되기 위하여는 난민에 대한 환영과 난민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난민신청이 체류연장이나 취업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난민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난민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금년도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상위 6개국은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인도의 아시아 국가들이고, 최근 3년간의 상위 3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였다. 난민신청 사유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출신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출신국이 많은 경제적 이주민을 배출하고 있는 국가인 경우 이들 국가 출신의 경제적 이민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2021년 5월 말 현재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은 다음과 같다.<sup>11</sup>

<sup>10</sup> 김현미, 이호택 외,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p.199.

<sup>11</su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년 5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9.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24422795099100)

<표2-7> 난민신청자 주요 출신국

2021.5.31. 현재

199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5월	
총계	32,733	총계	16,173	총계	15,452	총계	6,684	총계	1,032
파키스탄	4,268	카자흐스탄	2,496	러시아	2,830	러시아	1,064	방글라데시	143
중국	3,640	러시아	1,916	카자흐스탄	2,236	이집트	718	중국	141
이집트	3,244	말레이시아	1,236	중국	2,000	카자흐스탄	603	필리핀	75
나이지리아	1,831	중국	1,200	말레이시아	1,438	말레이시아	452	네팔	71
카자흐스탄	1,810	파키스탄	1,121	인도	959	방글라데시	435	나이지리아	67
방글라데시	1,456	인도	1,120	파키스탄	790	인도	420	파키스탄	65
시리아	1,323	이집트	870	방글라데시	491	중국	311	인도	60
인도	1,278	방글라데시	607	베트남	381	파키스탄	303	이집트	41
네팔	1,216	예멘	602	모로코	365	네팔	260	스리랑카	26
러시아	1,068	필리핀	507	터키	320	모로코	173	가나	25
기타	11,599	기타	4,498	기타	3,642	기타	1,945	기타	318

## 2. 난민의 사회 기여와 농촌 주거

### 가. 난민의 사회 기여

(1) 난민은 우리 사회에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고 난민의 수용 및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선주민과 이주민, 국민과 난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민이 단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국민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난민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난민과 국민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다.

## 나. 농촌 주민으로서의 난민

(1) 사람들이 떠나 공동화된 농촌을 난민들이 일으켜 세우고 한국 농촌의 일손 부족과 침체를 난민의 일손과 자산으로 극복하는 모델로서 난민들과 더불어 사는 농촌 공동체 문화 마을을 충남지역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2) 잠자리와 일자리가 필요한 난민과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촌에 난민의 사회적 주거를 마련하여 난민에게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난민의 사회적 주거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침체된 농촌을 회복하는 사회통합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난민들과 농민들이 더불어 사는 농촌에서 난민들의 문화와 한국 농촌의 문화가 어우러지고 난민공동체 문화 마을을 중심으로 생산과 문화의 풀뿌리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면담에 응한 난민들 가운데 심지어는 농업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 난민 중에서도 농촌에서의 정착이나 농업과 관련된 비전을 표출한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농촌을 떠나는 한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난민들도 농촌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민들의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선주민인 시민들과의 경쟁과 갈등을 생각한다면 난민들이 시민들과 경쟁하지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환영하는 시민, 기여하는 난민’의 정착 모델이 필요하므로, 리빙랩사업을 통하여 난민들이 농촌에 주거하면서 농업을 통하여 자신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델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언어와 문화생활



## I. 언어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결과

제 3 장에서 소개할 내용은 난민들의 한국어 사용 현황과 지역 사회와의 문화 교류의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대다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살아가지만, 한국어를 스스로 습득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단순한 한국어 외에는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적응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국어 구사능력과 사용 환경

#### 가. 한국어 구사 능력

<표 3-1> 개인별 한국어 구사 정도

구분 (무응답 : 2)	0 전혀못함	1 조금	2 보통	3 약간능숙	4 능숙함
응답자수	2/18	5/18	6/18	5/18	0/18

설문 결과, 무응답 포함 총 20 건 중 자신의 한국어 구사 정도가 기초 수준인 2 단계 정도라고 대답한 난민의 수가 13 건으로 전체의 6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난민들이 한국어를 기초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지만, 한국어 교육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그들의 경험에 의한 답변이었다.

한국의 재정착 난민의 경우,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9 개월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약 2 년이 지난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3 년)에서의 재정착 1 기 난민은 2(약간)단계 이하의 기초 수준이 60%였다. 센터에서 7 개월 교육받고 사회 배출 1 년이 지난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2 년)에서의 재정착 2 기 난민의 경우 62.5%였으며, 센터에서 7 개월 교육받고 막 사회에 배출된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1 년)에서의 재정착 3 기 난민의 경우 100%의 기초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앞의 수치와 비교하여 볼 때

충남지역 체류 난민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입국 2 년부터 3 년까지 경과된 외국인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 나. 한국어 사용 환경

<표 3-2>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

구분 (무응답 : 3)	있음	없음
응답자 수	8/17	9/17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는 총 17 중 8 건(47%)만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경험상, 일상에서 한국인과의 대화는 극히 적었다. 이러한 언어적인 소통 부재 현상이 자연스러운 계토화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재정착 난민의 경우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9 개월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 약 2 년이 지나간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3 년)에서의 재정착 1 기 난민은 한국인과 정기적 대화가 60%였으며, 센터에서 7 개월 교육받고 사회 배출 1 년이 지나간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2 년)에서의 재정착 2 기 난민의 경우 75%이고, 센터에서 7 개월 교육받고 막 사회에 배출된 시점(입국일로부터 약 1 년)에서의 재정착 3 기 난민의 경우 40%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평균 체류 3 년의 충남지역 난민의 한국인과 정기적 대화율이 입국 1 년이 지난 재정착 3 기 난민 수준의 40%에 지나지 않아 계토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표 3-3> 동거인과의 한국어 대화 빈도

구분 (무응답 : 2)	모국어만 사용	가끔 한국어 사용
응답자 수	15/18	3/18

<sup>12</sup> 이호택 외,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법무부용역보고서, 2018.11., p.187

<sup>13</sup> Ibid. p.189

동거인과의 한국어 대화 빈도는 모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18 중 15 건, 전체의 8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환경에서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려주며, 한국인과의 접촉을 제외한다면 한국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경험에 근거했다고 답했다.

**[사례 3-1]**

“가족들에게는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주변에 아랍인 친구들이 없기에 밖에 나가면 한국어를 사용해요.”

-A 씨 (이라크)-

계속하여 모국어만 사용하는 환경은, 계속된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잊게 한다. 가정에서 난민들 또한 본국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하고, 한국어 관련 교육에 대하여 난민들의 생각을 설문하였을 때 전원이 한국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특별하게 제안할 것이 없다고 답하였다. 일상생활은 모국어로 가능하지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국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모든 난민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표 3-4> 한국어 교육 참여 의향

구분 (무응답 : 5)	희망	비희망
응답자 수	12/15	3/15

한국어 교육 참여 의향은 15 건 중 12 건으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난민들 중 한국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사례 3-2]**

“저는 한국어 사용을 못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지금 두 군데에서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수업을 하는 장소가 더 많아지면 그러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좋겠어요.”

-J 씨 (시리아)-

한국어는 한국 사회에서 일을 가지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여타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특성상 한국어를 정기적으로 교육받거나,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도태되며, 이 사회에서 고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난민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실시 기관 혹은 수업의 빈도를 늘려 계속해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표 3-5> 통역 서비스 희망 비율

구분 (무응답 : 5)	희망	비희망
응답자 수	10/15	5/15

앞서 제시한 결여 환경에 반해, 한국어 교육의 참여 의향이 있는 난민은 15 중 12 명으로 전체의 80%였다. 또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희망하는 난민들의 경우도 15 중 10 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일상생활 혹은 구직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환경을 바라본 그들의 경험에 근거했다고 답했다. 이미 그들도 한국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언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례 3-3]**

“앞으로 한국어가 유창해진다면, 교육 혹은 봉사활동과 같이 지역사회에 뒀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참여할 생각이에요.”

-A 씨 (이라크)-

난민들이 한국어 습득 이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답한 이유는, 그들 또한 본국에서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 사회에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들도 스스로 언어적인 어려움과 차이를 극복한다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러한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다. 단순히 언어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한국 문화 적응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 가. 음식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적응도

<표 3-6> 선호하는 한국음식

구분	라면	김치	비빔밥	기타
응답자수	9/20	5/20	4/20	김밥, 김치찌개, 떡볶이 등

음식의 경우, 라면, 김치, 비빔밥 순으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호하였다. 언어의 영역보다 식생활의 영역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낼 만큼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한 상황이었다. 또한 설문 과정에서, 그들 고유의 음식을 만들고 문화생활을 가정에서 교육하고 이뤄나가고 있다고 답변할 만큼 문화를 구별 없이 잘 습득하고 유지해가고 있었다.

### 나. 난민 관련 행사 프로그램 미비

과거 난민 관련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 1명을 제외하고 참여한 바가 없으며, 이마저도 충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참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아직은 부족하여 난민과 지역사회 간에 공식적인 통합의 장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문화적인 통합이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가 난민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이어가고 있는 그들 고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어우를 수 있는 통합의 장이 필요하다.

## II. 언어와 문화생활 여건 개선 제안

### 1. 지역과 난민이 문화 및 언어를 교류하는 방안

#### 가. 충남/지역 외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생활 지원 봉사 및 일상 상시 통역 풀 개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시/도청이 협력하여 난민 생활 지원 봉사 및 일상 상시 통역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난민들이 도움을 받는 다문화 센터 및 지역 종교 단체, NGO 단체들에서 생활 지원 수요를 신청한다면, 시/도청의 지원을 통해 통역 풀을 만들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양한 언어를 제 2 외국어로 습득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언어 전문화와 학생들에게는 봉사 활동 및 시간 충족, 지역 난민들에게는 언어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경우는 학교와의 소통 및 고용주와의 소통이었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제 2 외국어를 습득하는 고등학생이 충분히 통역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활용 분야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난민들과 협업하는 고용주의 소통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에 한국어 교육을 보충하여 난민들의 지역사회에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질성을 보완할 수 있다.

#### 나. 지역 장을 활용한 문화 체험 부스(장) 설치 방안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 장터에 난민을 주로 하는 다 문화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난민들의 본국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을 알리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충남 시, 혹은 도청의 차원에서 다문화 부스를 지원하며, 참가 이벤트를 (예 : 참가 스티커 완료 시, 사은품 증정) 개최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난민을 이해하고, 난민의 현황을 파악하며 지역 주민들의 서로가 자연스러운 이웃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

## 다. 온라인 제 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난민 참여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서 희망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며 발음을 교정해주거나, 기초 제 2 외국어를 교육하고 일정량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다. 난민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민의 언어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라. 무료 한국어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방안

기존에 이미 배포했던 무료 한국어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많은 난민이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추가적인 복지 장치를 설정하기 어렵다면,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자세히 홍보하는 방안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한국어 시험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컨대 비자를 연장하러 갈 경우, 한국어 시험을 거치게 하는 방안, 혹은 별도의 한국어 시험 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 언어

언어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취업, 사회적 관계 형성, 문제해결 능력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난민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우리 사회에서 잘 통용되지 않는 언어권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소통 측면에서 언어생활 관련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난민들에게는 생소한 언어 뿐 아니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 다소 이질적인 종교, 음식, 생활습관 등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경험이 주는 난민 이해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난민들과 주민들이 서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배우는 다국어 학당 등의 참여를 발판으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제안한다.

## 제 4 장 생계와 직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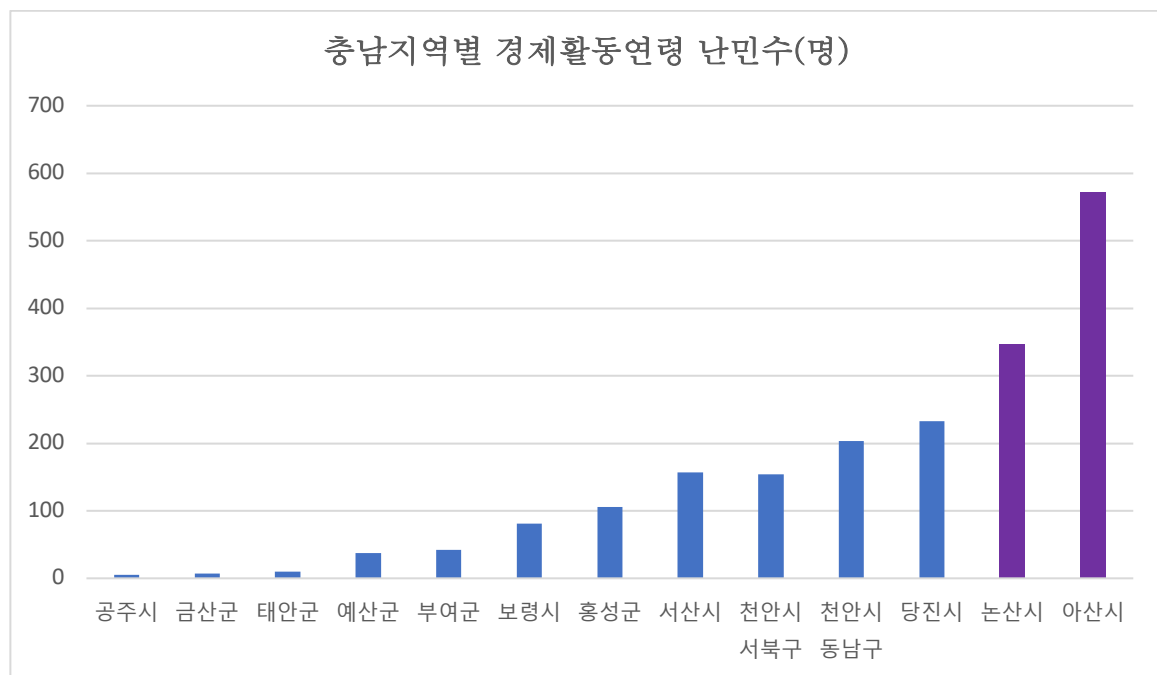


## I. 생계와 직장생활 실태조사 결과

생계를 위하여 취업이 중요하지만, 난민은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다른 이민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충남지역 내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등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난민들의 취업과 직장생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난민(15세~55세 사이)의 수는 논산시와 아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프4-1>참조

난민 중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말미암아 취업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취업 활동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구직활동부터 취업 후 노동환경, 그리고 퇴직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난민들의 취업 활동에 대해 듣고 무엇이 난민들의 직장생활의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 이슈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난민의 생계 및 취업 관련 제도의 문제보다 주어진 제도 내에서 난민들의 재정관리, 시간관념, 직장예절, 직장 기초용어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여건 개선과제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래프 4-1> 충남지역별 경제활동연령(15~55세) 난민 분포현황 (2021년도 기준)

출처 : 통계청 지역별 연령별 난민통계를 기준으로 저자 재구성

## 1. 취업상태

### 가. 충청남도 난민의 취업현황

<표 4-1> 현재 취업여부

성 별	취업		실업 (무직)	
	남	여	남	여
응답자수	8/20	4/20	6/20	2/20

총 20명 (남 14, 여 6)의 충남 거주 난민 중 12명 (남 8, 여 4)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0%이고, 나머지 8명은 무직으로 실업률은 40%이다. 이 중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형태로 취업한 사람이 1명이다. 고된 업무량과 육아와의 병행이 어려워 남성보다 취업에 제한적인 상황에도 여성 취업률은 20% 정도 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여성의 경우, 취업 가능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평균 10시간 정도의 긴 근무 시간과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감당해 내야 하므로 남성보다 취업과 자립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육아를 병행할 경우 아이가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 있는 동안만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1>에 여성 근로자 4명 중 2명은 자녀가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 나. 근무시간

충남 도민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고용계약 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포함)의 소정 실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의 월간 합계는 168.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충북(168.7시간)과 경남(168.4시간), 울산(168.1시간) 다음으로 많은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표 4-2> 월간 총 근로시간 (2020 년)

구분	월근로시간	구분	월근로시간
전국	163.4	충북	168.7 (상위 1 위)
서울	157.1	충남	168.1 (상위 4 위)
경기	166.4	제주	153.5 (가장 적음)

<표 4-3> 난민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40 시간 미만	40 시간 이상	50 시간 이상	60 시간 이상	70 시간이상
응답자수 (무응답: 2)	2/10	2/10	1/10	4/10	1/10

이에 반해 응답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이상이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응답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2시간으로, 이는 도민 총 근무시간보다 월 44시간 이상 많다. 응답자 10명 중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8명(80%)이며, 이 중 5명(50%)은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평일 8시간의 근무 후에 약 2시간의 잔업이 있고 격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며, 70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일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 이상의 야간 근무와 주말 출근을 병행한다고 대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한 명은 개인 여가나 생계 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 [사례 4-1]

“야간 근무 조라서 매일 밤새워 일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근데 일주일에 6일 일할 때도 많아요.”

-N 씨 (아프가니스탄)-

## 다. 직장의 수

<표 4-4> 작년에 일한 직장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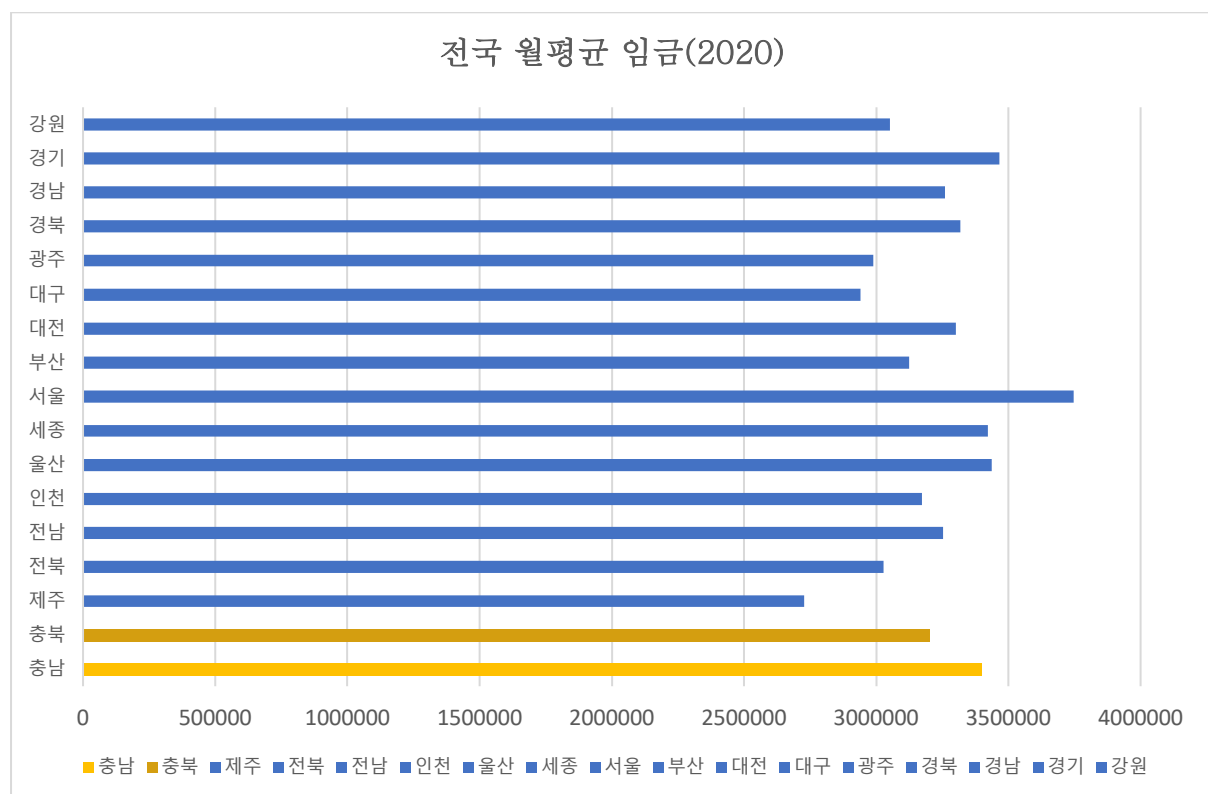
직장의 수	취업경험없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응답자수 (무응답: 2)	3/18	8/18	5/18	1/18	1/18

총 18 명 중 현재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44%를 차지하는 8 명의 응답자가 한 군데의 직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으며 28%를 차지하는 5 명이 한 해 동안 두 군데의 직장에서도 근무하였고, 5% 차지하는 1 명이 세 군데의 직장에서도 근무하였다. 그 밖에 5% 차지하는 1 명이 네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18%를 차지하는 3 명이 취업한 경험이 없었다.

## 라. 소득

2020 년도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약 345 만원으로서, 충남지역은 서울·경기에 이어 울산시와 근소한 차이로 4 위를 기록하였다. 충남지역은 충북지역보다 약 20 여만 원이 많은 월평균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3~4%의 임금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그래프 4-2 참조>

<그래프 4-2> 행정구역별 전국 월평균 임금(2020 년)



<표 4-5> 월 수입 현황

월 수입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상
응답자수 (무응답 : 6)	4/14	9/14	1/14

충남도민의 월평균 임금 330여만원인데 반해 난민 취업자들은 도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00만원대를 지급받고 있으며, 일부는 100만원대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가장 임금이 적은 제주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270여만원으로 난민의 월 급여 수준은 전국 평균 340여만원보다도 월100여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1,822,480원이다. 월수입 관련 설문에 응답한 12명의 평균 월수입은 1,741,666원이다. 월수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53시간이다.

응답자들 대부분의 수입은 주거를 비롯한 기초 생계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정기적으로는 난민신청자의 특성상 난민 법적 절차 과정 진행을 위한 비용과 취업연장허가서 비용에 사용되며 그 밖에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양육비로 사용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2.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 가. 직장 내 애로사항

<표 4-6>직장 내 애로사항 (복수응답)

항목	응답자수 (무응답: 2)
① 언어 (작업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함)	11/18
② 관계 어려움 (상사나 한국인 근로자 등)	10/18
③ 작업환경 (위험한 일 등)	7/18
④ 작업시간 (야근 및 추가 근무가 많음)	8/18
⑤ 일 자체가 어려움 (종일 서서 일하는 등)	11/18
⑥ 기타	7/18

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난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작업 지시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한 산업체의 경우, 나름의 요령이 있어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긴 하지만 업무상 팀워크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 환경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취업비자취득 조건에 따라 기본적인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본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의 상황 특성상 언어는 업무와 병행하여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직장 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응답자들은 크고 작은 오해를 사거나 받기도 하고, 동료나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사하게 난민도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공장, 농가지원, 비선호 산업 분야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충청지역은 전국의 약 20%의 해당하는 농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425,207명이다. 이들 중 충남거주 농가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경상, 전라, 경기, 충청 지역을 합산하여 이들 지역의 중 13.3%에 해당하는 농가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위험도, 긴 근무시간, 육체적으로 고된 근무도 근로자들이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근로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 한국인 근로자와의 업무 차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산재처리 불가능, 임금 체불 등의 부정적인 대우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사례 4-2]**

“일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요. 한국 사람들과 차별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아요. G-1 비자(난민신청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어요.”

-Q 씨 (예멘)-

**[사례 4-3]**

“무거운 것 들거나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대부분 일자리 환경이 먼지가 많아요.”

-A 씨 (예멘)-

**[사례 4-4]**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정식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산재 처리가 안된대요.”

-D 씨 (민주콩고)-

눈여겨 볼 사항은 산업체의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인도적 체류자 포함)에 대한 제한적 특성과 이해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꽤 많은 국내 산업체들이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G-1 비자)의 채용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할뿐더러, 취업 후

에도 정기적으로 취업연장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난민 지위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긴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난민 근로자들은 취업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정기적인 출입국 사무소 방문으로 인해 산업체의 생산 라인에 큰 차질을 빚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매번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산업체가 난민 취업과 체류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이 가지는 제한적인 특성이 해고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나. 직업 훈련 및 한국어 교육 수강 여부

<표 4-7>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 참여 현황

직업 훈련 수강 여부 (무응답:1)		한국어 교육 수강 여부 (무응답:1)	
있다	1/20	있다	10/20
없다	18/20	없다	9/20

난민들의 직업윤리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 수강 여부는 거의 없으며, 한국어 교육 수강 여부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을 수강해 본 적이 있는 난민들의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 거주하던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센터나 이주민센터에서 통해 수업을 수강했으며, 이마저도 생계유지를 위해 주말 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많아야 일주일에 1~2 번 정도 수강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한국에 거주한 지 6 년이 넘었으나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 다. 교육훈련 분야 중 수강하고 싶은 수업

<표 4-8>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 (복수응답)

항목	응답자수 (무응답: 1)
한국어	13/19
자동차(운전면허)	9/19
농업	1/19

컴퓨터	4/19
외국어	7/19
한국사회와 문화이해	5/19
취업 및 직장윤리	7/19
건강위생	3/19
자녀교육	2/19

가장 높은 교육 수요는 단연 한국어이며 한국어, 자동차 (운전면허), 외국어, 취업 및 직장 윤리, 한국 사회와 문화이해, 컴퓨터, 건강 위생, 자녀교육, 농업 순으로 훈련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pecially 난민들에게 구직이나 취업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특별히 세계 공용어인 영어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는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 항목은 자동차(면허)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개선과 직장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난민들의 희망 교육 분야는 한국 사회에 더 쉽고 빠르게 자립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지역 사회 정착 희망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II. 생계와 직장생활 여건 개선 제안

### 1. 다문화 지원센터의 활용

#### 가. 충남 내 구직센터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 (1) 취업 정보, 연계 관련 서비스 제공

취업은 정착의 기초이자 경제적 자립이며 가장 보편적인 사회통합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구직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 인정자 (F2)를 포함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신청 후, 6 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 워크넷,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국가 지원 시설에서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업 소개나 취업 훈련 등 고용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난민들의 취업 경로는 주로 유료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국내 거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지인이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 년 충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도내에 취업과 관련된 4 가지의 이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모두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며 구직을 돕는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지인이나 국내 동일 문화권 커뮤니티를 통해 구직하는 방법 외에는 충남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 유료 직업소개소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이나 타지역을 방문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구직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언어와 직업소개소의 시스템을 모르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알선 사기를 겪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개받은 업체를 방문했을 때 해당 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로 다시 산업체를 소개받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알선 관련 피해사례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난민들이 도움을 구하기에 접근이 용이한 다문화 센터 내 서비스를 확장하여 난민들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도내에서 구직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되, 통역이 필요한 경우 도내의 대학교 동아리나 언어 관련 학과생들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2) 리빙랩을 활용한 도내 산업체와 난민 구직자를 돕는 교육 및 단기 일자리 제공

구직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교육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다. 난민에게 산업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할 때, 산업체는 한국어나 한국문화, 근무문화가 훈련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난민은 근로자를 배려한 환경에서 장기 취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내 산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난민들의 경우 주어진 제도 안에서 재정관리, 시간관념, 직장예절, 직장 기초용어 등 직장 생활과 관련된 소통과 참여를 권유하는 개선을 위한 교육, 그 외에도 난민들이 스스로 유료소개소를 통해 구직할 때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사기예방교육을 진행한다면 난민의 취업을 넘어 자립을 돕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교육을 잘 수강한

구직자들에게 산업체 정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육아 등으로 특정 시간 외에 근무가 어려운 난민들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 농가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분기별 일자리를 마련하여, 난민들의 재정 활동을 돕고 충남 지역에도 유익이 되는 단기 일손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다. 리빙랩에서는 함께 일할 난민 인력들을 모아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후 식사도 함께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생성하고 운영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 나. 커뮤니티 활성화 - 지인을 통한 연계 및 여성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 외에 난민들의 취업 경로는 지인이나 동일 문화권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된다. 무엇보다 지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구직하는 방식은 고용주와 근로자(지인)의 신뢰 속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수월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설문 응답자와 그의 직장 동료들의 경우 동일 국가의 커뮤니티를 통해 구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잡한 구직 절차(타지역 소개소 방문, 수수료 지급, 산업체 방문 등)를 밟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체에 취업, 장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더욱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여성 구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소외 문제를 막기 위해 다문화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육아 책임, 비용을 분담과 같은 공동 육아 시스템이나 여성의 강점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취업 모델을 구축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출신국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한 난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단순 노무직 외에 종사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 사회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혹은 난민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화, 고유 재능들을 충남 도내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난민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 제 5 장 교육과 학교생활

## I. 교육과 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

### 1. 국내 난민아동 현황

#### 가. 국내 난민아동 보호 현황

##### (1) 국내 난민아동 통계

처음으로 난민인정신청 절차가 시작된 1994 년부터 2019 년까지 국내로 피신하여 난민신청한 19 세 미만의 아동의 수는 총 2,942 명이고, 이 중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은 332 명,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아동은 527 명이다. 난민아동 변화를 살펴보면 2019 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한 19 세 미만의 난민 아동은 581 명이었으나, 2020 년에는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인해 301 명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난민신청한 아동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 년도 전체 난민신청자 2,065 명 중 4%를 차지하는 71 명의 난민아동은 코로나-19 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sup>14</sup> <그래프 5-2> 충청남도 연령별 난민아동증가 추이(2016-2020 년도) 참조

##### (2) 난민아동 보호의 필요성

한국이 1989 년 11 월 20 일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 조에는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22 조에는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는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5</sup>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난민아동은 안전을 위해 부모를 따라 국내로 피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거부와 배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이탈이 초래된다. 또한 난민아동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가정에서 방임되는 경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난민아동이 지역과 교육 울타리 안에 통합되고 적응하는 문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통합되고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sup>14</sup> 난민인권센터, 『2020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9.12.31 기준 국내난민현황』, 2020, p.22-24

<sup>15</sup>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지역 난민아동이 지역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분석하고 아동과 부모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나. 충남지역 난민아동 통계

2020 년 기준 충남지역에는 총 2,065 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들 중 만 18 세 미만 아동은 71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난민 인정자 (F-2)가 5 명, 난민신청자(G-1-5)가 52 명, 인도적체류자(G-1-6)가 14 명이며, 난민아동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논산시와 아산시에 각각 16 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에 10 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 인원을 살펴보면, 0~4 세 17 명, 5~9 세 17 명, 10~14 세 10 명, 15~19 세 27 명으로, 15~19 세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많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각각 17 명으로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sup>16</sup> 미취학 아동은 예산군에 10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논산과 아산지역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 등을 위한 아동지원은 예산군, 아산시, 논산시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프 5-1 참조>

<표 5-1>에 따르면 아동수당이나 교육 급여,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지원 등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보호 안전망에 속해있는 난민인정자에 비해 난민신청(G-1-5)와 인도적체류자(G-1-6)의 난민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제도가 미비하여 생계, 건강, 교육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난민아동들이 차별과 특별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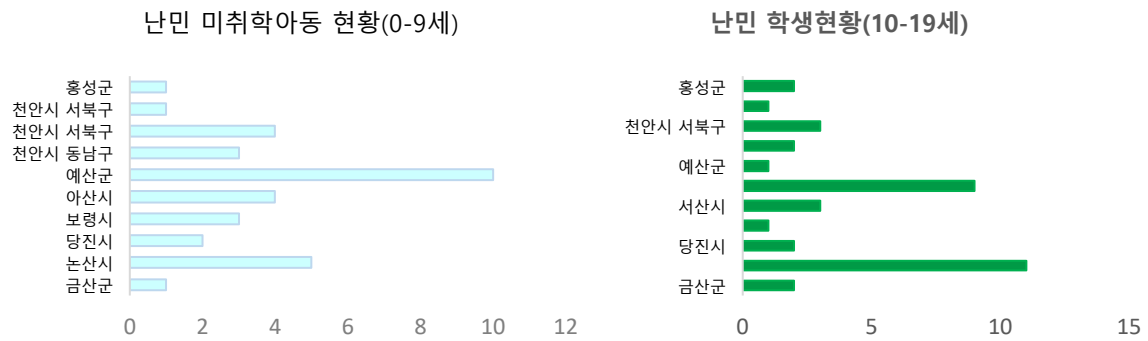
<표 5-1> 충청남도 체류자격별 난민아동 현황(2020)

구분	난민인정 (F-2-4)	난민신청 (G-1-5)	인도적체류허가 (G-1-6)	계 (명)
0~4 세	1	14	2	17
5~9 세	2	6	9	17
10~14 세	1	7	2	10
15~19 세	1	25	1	27
총계	5	52	14	71

출처 : 법무부 난민과(2020 년 기준)

<sup>16</sup> 법무부난민과, "충남 지역별 연령별 난민관련 통계", 사단법인 피난처 정보공개청구회신, 2021.3.18.

<그래프 5-1> 지역별 난민의 아동현황(0-19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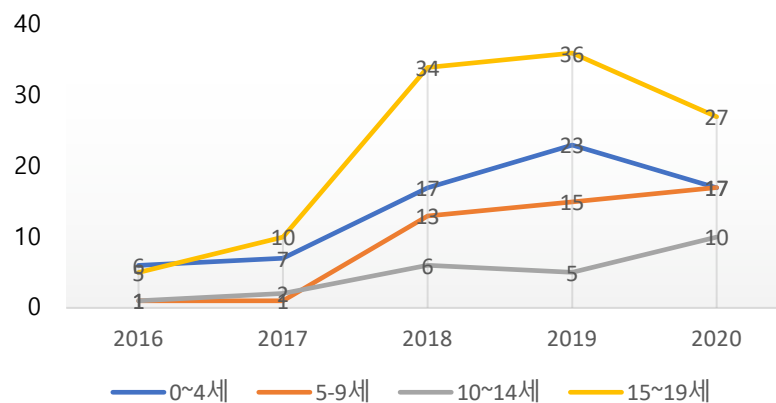


<표 5-2> 충청남도 연령별 난민아동수 증가 추이(2016 년-2020 년)

(단위: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0~4 세	6	7	17	23	17
5-9 세	1	1	13	15	17
10~14 세	1	2	6	5	10
15~19 세	5	10	34	36	27
총계	13	20	70	79	71

출처 : 법무부 난민과(2020 년 기준)



<그래프 5-2> 충청남도 연령별 난민아동증가 추이

표<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점차 난민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해서 아동의 인구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난민 아동에 대한 주요

문제들 - 아동의 가정 내 방임, 정체성 혼란 및 아동학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증가할 난민 아동들이 충남지역의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 가. 자녀교육 인터뷰 대상자 한계점

본 문항은 결혼한 부모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총 20 명의 응답자 중 4 가구(응답자 6 명)만 1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 조사 결과를 충남도 전체에 난민 아동의 생활실태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난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결혼하여 자녀를 둔 난민가정을 제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 외의 선행보고서 및 문헌 조사를 참조하여 난민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생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나. 자녀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 (1) 자녀 양육여부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응답자 중 4 가정으로, 모두 1 명~2 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표 5-3>에서 보여주듯이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1 가정, 학교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3 가정이었다.

<표 5-3> 자녀 양육여부 및 학교이용 현황

구분	예			아니오		
	학교 (보육기관)	가정 내 양육	소계	학교 (보육기관)	가정 내 양육	소계
응답자수	4	2	6/20	-	-	14/20
응답한 가정	3	1	4/18	-	-	14/18

세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기관은 홍남 초등학교 2 명, 피기친구들 어린이집 1 명이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동생들과 나머지 1 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 (2) 자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자녀를 양육하는 4 가정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을 때, 가정 내 분위기는 대체로 밝고 안정되어 보였다. 인터뷰 결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적은 것으로 대부분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재정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하지만, 아이들은 대체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는 교사, 이웃, 학부모,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와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만족감)와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촉진된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기관에 다니는 3 가정 모두 아이들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결석 없이 잘 다니고 있었다. 3 가정 모두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이웃이 있었으며, 학교, 어린이집,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사례 5-1]

“딸의 경우도 학교에서 많은 예쁨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에서의 좋은 경험은 딸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큼니다.”

-A 씨(이라크)-

### [사례 5-2]

질문 : 그럼 자녀 교육 때문에는 (스트레스) 받아요, 안받아요?

답변 : “별로 안받아요. “

-A 씨(이라크)-

충남지역이 서울 이태원이나, 안산시, 동두천시 등에 비해서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설문에 응답한 부모 대부분이 아동에 대한 차별로 인한 어려움이 적었고, 오히려 아동을 통해 이웃들과 교류하고 통역 등의 도움을 받으며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잘 정착하고 싶다는 갈망과 더불어 부모와 아이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본인의 재능(언어, 문화, 요리 등)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5-3]**

“저는 (한국문화)알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 살아서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학교 다녀요. 여기 아마 계속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문화 알아야 돼요.”

-J 씨(시리아)-

**(3) 자녀교육에 대한 의지**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화와 국적에 관계없이 부모라면 자신의 안위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착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좋은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인터뷰에 응한 부모들 모두 자녀교육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높았고 본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잘 정착해서 높은 교육 수준까지 받기를 바라는 태도에 근거한다고 답했다.

**[사례 5-4]**

“아이가 공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멘에서는 (내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나중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공부에)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건강과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나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나처럼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H 씨(예멘), N 씨(모로코) 부부-

**[사례 5-5]**

질문 : 네, 그러면 아이들 세명이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도 갔으면 좋겠어요?

답변 : “네, 여기에서, 교육이 좋아서요.”

-J 씨(시리아)-

**다. 난민아동이 겪는 현실적 한계**

**(1)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동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언어장벽이다. 충남지역 난민가정 뿐만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을 양육하는 대한민국의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충남지역 연구조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원인은 지역 내에 통역을 제공하는 센터나 NGO가 거의 없고, 같은 언어권의 부모들이 가까이 모여 거주하지 않으며, 특히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통·번역 활동가는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3가정의 응답자들 모두 교사와 면담이 진행되었고,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의 전달사항을 이해한다고 응답했지만,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학교 전달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사와의 소통은 더 어려웠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학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가정은 1가정뿐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도 있었겠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서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사례 5-6]

질문: 학교에서 알림장 보내주지 않아요? 알림장을 영어나 아니면 아랍어로도 보내줘요?

답변: “아니요. 한국어만 보내요. 너무 어려워요. 사전처럼 통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 보아요.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봐요. 오늘 어떤 거가 있어요. 중요하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알림장 번역은) 여기 왔을 때 남편 친구 물어봐요. 남편한테 사진 보내요. 남편 친구 물어봐서 다시 알려줘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자주 물어볼 때 미안해요.”

-J 씨 (시리아)-

#### [사례 5-7]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어 수업)다닐 때, 아이가 유모차 데리고 갔어요. 다 같이 가요.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J 씨 (시리아)-

수업이해에 대한 설문응답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가끔 수업을 이해한다고 대답하였다. 아동의 경우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주한 아이일수록 입학 초기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외부와 단절되는 경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가 학업의 첫 시작부터 외부와 단절된 경험이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본인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효능감 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으나 발달 시기에 경험한 안 좋은 경험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하게 할 수 있다.

**[사례5-8]**

“첫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선생님 말하기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다 못 받아서 이해 못하면 조금 속상해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아이가 첫째 날에 학교 다녀와서 재미있게 지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마 한달 동안 다녔어요. 학교 다니기가 어려워 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말했어요. 아마 선생님 말 다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 잘 해요. 잘했지만 아마 어떤 말은 못하면 저처럼 저는 아마 지금 한국어 아마 선생님 말씀 다 알아듣지만 어떤 단어만 잘 못 알아들어요.”

-J 씨 (시리아)-

따라서 학업의 첫 시작에서 아동의 이주배경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한국사회에 효능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난민 아동이 학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언어 및 학습을 보충하는 동시에 아동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돌보는 방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일 뿐 아니라, 나아가 난민아동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가 된다.

**[사례 5-9]**

“음, 어린이 집 다닐 때, 조금 그랬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5년 돼서. 5년 동안 어린이 집에 다녀서 익숙했어요. 하지만 얼굴 달라서 조금 아마 아이가 조금 괜찮아요. 씩씩해요 아이가.”

-J 씨 (시리아) -

**(2)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 한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4 가정 모두 미취학 아동이 있었고, 이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가정은 1 가정뿐이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보육비

지원이 제공되지만,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본인이 보육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고 월 30~50 만원 사이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월 보육비용은 맞벌이로 수입이 있는 내국인 가정에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고, 노동강도가 높은 공장직 위주의 충남지역 특성상 난민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수입으로만 보육료를 감당하기는 매우 버겁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인터뷰에서 아동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꼽았고, 아동이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어릴 때 한국어를 배워야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보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례 5-10]**

질문: 아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가요?

답변: “어린이집 비용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비용이 비싼데, 아이가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B 씨(이집트), T 씨(이집트) 부부-

**(3)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어려움**

아동과의 소통에 대한 문항에서 4 가정 중 1 가정을 제외한 3 가정 모두 소통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아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한국어에 더 익숙해지고 이는 부모와의 소통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아동이 본국에서 일정기간 살다 온 것이 아니라면 언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고 부모가 끈질긴 열정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자라면서 한국어만 사용하고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사례 5-11]**

질문: 따님이랑 의사소통할 때 한국말로 하세요? 아니면 모국어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세요?

답변: “딸과 한국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아랍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A 씨 (이라크)-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친밀하지 못하게 하여 발달 시기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들어야 하는 애정표현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필요에 대해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갈등은 더 심해진다. 따라서 부모는 한국어를 배우고, 아동은 부모의 언어를 배우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5-12]**

“아랍 책 없어요. 많이 그리워요. 또 아랍 동화책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주 찾아봐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살 수 없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아랍동화책이 있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주 가르쳐줘요. 우리 문화, 아랍어도 집에서 자주 가르쳐줘요. 우리 문화 써야 돼요. 아이들도 아마 친구들한테 이것은 시리아말, 우리는 그렇게.”

-J 씨 (시리아)-

**[사례 5-13]**

인천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랍어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인천에는 아랍어 유치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가 우리 문화와 언어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B 씨(이집트)-

## II. 교육과 학교생활 여건 개선 제안

난민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난민이 되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거주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 언어, 음식, 교육에 뿌리(정체성)을 두고 성장하게 되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지에 따라 아동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충남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난민아동과 가정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통합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 1. 언어지원을 통한 지역통합

### 가. 통·번역 서비스 지원 (가칭: 통·번역본부 설치)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부모와 교사와의 면담 등 학부모와 학교 간의 언어 통역 서비스를 구축한다. 특히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특수언어의 경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중요 알림내용이 있을 때 새롭게 구축한 ‘통·번역 언어지원본부’에 연락하여 부모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학교-언어지원본부 간의 협력을 구축한다.

‘통·번역 언어지원본부’는 충남지역에 있는 언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생, 통·번역 센터, 해외 거주 경험자 등과 협력하고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통·번역 풀을 생성한다. 인터뷰의 경우, 화상통화 어플을 사용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의 경우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통·번역 풀에서 가능한 사람이 부모의 언어에 맞게 언어지원을 제공한다. 외국어 번역지원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서울 양천구 내에 있는 복지관의 경우 ‘이주아동 학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 아이가 속해있는 학급 담임교사와 통·번역 활동가가 속한 센터를 연결하여 담임교사가 보내는 가정통신문 등의 서류를 번역하여 부모가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방과 후 아이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의 사례와 같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 대학생이나 한국어 강사를 고용하여 아동에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 한국어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아이는 다른 과목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 진행하면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더불어 교사와의 소통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수업 장소가 아이의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를 함께할 수 있고 더불어 아이의 출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모의 한국어 수업에는 다른 내국인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투입하여 학부모 간의 친목 도모를 증진할 수 있고 난민가정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난민, 이주배경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학교에서 수업시간 혹은 방과 후에 진행하여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 교사와의 소통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 2. 지역 내 다문화 역량 향상

### 가.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국제사회 무대에서의 꿈을 펼치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 역량은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 문화 등을 접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여행, 어학연수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충남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난민 아동을 통해 같은 반 친구들이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난민아동에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강점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협력하여 다문화특강을 기획하여 아이의 부모를 다문화 강사로 세우고 시리아, 예멘, 모로코, 이라크, 터키 등 접해보지 못했던 본국의 음식, 언어, 문화, 놀이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세계시민 교육을 제안한다.

다문화 특강의 사례로서 서울 영등포의 한 중학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중학교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시리아 아이를 환영하기 위해 ‘School Empowerment Project’를 진행하였다. 아이의 입을 통해 시리아에 대해 듣고, 난민아이와 아이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김새와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학급의 분위기뿐 아니라 아이들이 난민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증진된다. 난민아동 부모 또한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다문화 특강을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학교 및 지역사회에 환대를 경험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 나. 부모(본국) 언어/문화교육

난민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언어 차이로 소통하지 못하고, 부모의 문화로부터 온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의 부모 언어 교육을 지역 내 센터에서 진행하고, 주 1~2 회 그 문화권 아이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아이들에게 본국 언어를 통해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부모와의 소통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민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이중언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또한 지역 내 언어관련 전문가와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 또한 자원활동가로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할 수 있다.

### 3.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원 확대

#### 가.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

2021 년도부터 아산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외국인 가정에 월 10 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sup>17</sup>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 아동이 비교적 많이 다니고 있는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아기사랑 어린이집과 행복이 어린이집 2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매우 선도적이고 아동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다만,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라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난민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 사업을 알지 못한다. 이유는 정보접근성 한계와 난민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육료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난민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0 년 기준 30 명 가량되는 충남지역 미취학 난민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아산시 및 논산시 등 아동이 많은 지역 위주로 대상 지역과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난민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 나. 지역 자원을 통한 공동 육아

충남지역에 이미 잘 구성된 공동 육아 공동체, 지역아동 센터, 방과 후 공부방 등과 협력하여 난민아이들이 지역 교육기관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아동이 지역에 잘 정착하면 이는 가정의 통합과 정착에도 연결이 된다. 또한 공동육아 등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한국인 가정과 난민가정 간의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난민아동의 소외와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난민들이 지역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sup>17</sup> 김점식 기자, '아산시, 충남 최초 외국인아동 통합보육 어린이집 선정 시범 운영', IPTV NEWS, 섹션별 뉴스-정치행정, <http://www.iptv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586>



## 다.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연계)

2020 년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5~19 세 난민 청소년 아이들이 27 명으로 집계된다. 이 아이들은 학업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이유, 체류의 제한 등으로 대부분 대학입학이 아닌 취업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다. 충남지역에 특화된 직업정보를 청소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졸업 전 멘토링 및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언어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취업 후에도 회사와 상생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난민 청소년 또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된다.

## 라. 충남지역 이민지원활동가 양성과정

충남지역 내 대학교, 시민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활동가를 양성한다. 특히, 대학교 내 개발 협력, 교육, 사회복지, 언어 등 다문화 분야로 진로를 계획하는 청년들과 지역 사회 내 은퇴 후 재능기부를 통해 이주민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길 원하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주민 전문 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다문화 역량과 사회참여 확대가 지역의 좋은 자산이 된다. 캐나다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난민가정을 적십자를 통해 지역 내 봉사자들이 방문하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정착을 돕는다.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학교 입학 등의 사소한 일부터 한국어 수업, 문화교류 등의 장기적인 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주민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재정착 난민을 대상으로 적십자 자원봉사단이 1 년간 각 가정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난민들은 시민들로 인해 지역에 좋은 인상을 갖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양성과정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이후 충남 지역 내 난민들과 한국어 수업, 아이돌봄, 취업기술교육 (시설보수, 목공, 농업 등), 농촌활동, 요리 등을 통한 문화교류 다문화 행사 등을 참여하고 난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지역의 인적자산으로서의 이민지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 4. 지역사회와 난민이 협력하는 충남지역

충남지역을 포함하여 국내 전체 외국인 인구에 비해 난민 비율이 높지 않으나, 국제적인 내전,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난민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일반적인 이주민과 달리 체류, 경제, 의료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도 다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민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그중에서 체류와 경제 문제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난민 특히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이 체계화된다면 이것은 난민 뿐 아니라 충남지역 내 전체 외국인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제 6 장 주거와 보건환경

## I. 주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은 생활여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충남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반면 소규모 공장지역 및 농축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난민들이 생활하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심장, 신장질환 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강문제에 놓은 경우 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에 위협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은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제 2의 생활고충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2020 년 이후 코로나-19 와 같은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난민 본인의 위험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병에 노출되어 지역감염 및 전파를 각별히 유의해야하는 상황이다. 제 6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처한 주거 및 보건상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사회적 차별이 없이 안전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주거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

#### 가. 주거형태에 관한 조사

<표 6-1> 주거형태

	노숙	텃터	친구집	월세	공장 기숙사
응답자수	0/20	0/20	2/20	14/20	4/20

주거형태는 응답자 중 상당수인 14 명(70%)이 월세를 내고 임차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4 명(20%)은 공장 기숙사에 소액의 월세를 내며 거주 중이다. 나머지 2 명(10%)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 나. 주거정보에 관한 조사

<표 6-2> 거주지 환경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방 개수(개)	총 거주인원(명)
0	25	1	2
30	38	2	4
50	30	1	2
	30	1	1
100	25	1	4
	30	1	2
150	20	2	1
200	25	2	3
	25	2	3
300	23	2	3
	23	2	3
	25	3	3
1,000	30	2	2
2,400	0(자가)	1	3
기타 (공장 기숙사)	0	3	5
	15	1	2
	15	2	3
	8	2	0
기타 (친구/친지네집)	-	1	3
	-	1	3

응답자 전원이 월세 40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비교적 넓고 저렴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친구 집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월세 대비 주거환경이 좋아 집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응답자 중 보증금이 1,000 만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인 한 응답자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큰 집을 원했기에 1,000 만원을 지불했다고 대답하였고, 또 다른 응답자의 경우 2,400 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에 집을 구매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사례 6-1]**

“월세로 살다가 아버지와 같이 살 집이 필요해서 돈을 모아 1000 만원으로 집을 샀어요.”

-H 씨 (예멘)-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지역은 보증금 300 만원, 월세 25 만원 기준으로 별이 들지 않는 반지하 원룸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응답자 중 보증금을 비교적 많이 지불한 2 명을 제외한 모두가 서울 이태원 지역과 비교해 저렴한 보증금으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 다. 주거비 지원 현황

<표 6-3> 주거비 외부지원 관련 현황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험	정부지원	단체지원
	0/20	1/20

응답한 충남지역 거주 난민 신청자 중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응답자 중 1 명의 난민이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다문화센터에서 해당 난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부지원이 아닌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NGO를 통해 주거비 지원한 케이스이다.

**[사례 6-2]**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적은 없어요. 다만 다문화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에 주거비를 신청을 해줘서 지원받은 적은 있어요.”

-A 씨 (이라크)-

재정착 난민은 정부로부터 1,000 만원의 상환조건 보증금지원과 1 년 동안 50 만원~70 만원의 월 임차료를 집주인에게 선납해 주는 방식으로 정착지 주거지원을 받는다.<sup>18</sup> 반면 현재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은 없다. 현재 응답자 중 2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해 친구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거주환경에 관한 조사 결과

### 가. 거주환경에 관한 조사

<표 6-4> 거주지 주변환경

항목	구분	예	아니오
집주인과의 마찰 경험	응답자수 (무응답: 1)	1/19	18/19
이웃과의 마찰 경험	응답자수 (무응답: 1)	1/19	18/19
시장/슈퍼마켓이 근처에 있는지 유무	응답자수 (무응답: 1)	12/19	7/19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접근성	응답자수 (무응답: 1)	14/19	5/19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시간 : 평균 16 분			

응답자 중 대부분이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과 큰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 응답자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과 트러블이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웃주민과도 마찰이 거의 없으나, 아이들이 놀 때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항의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 응답자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아랫집이 없는 1 층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사례 6-3]

“아이들 뛰고 노는 소리로 인해 이웃집 여자분이 화를 자주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 층집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J 씨 (시리아)-

<sup>18</sup> 이호택 외, 『재정착난민 정책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법무부용역보고서, 2018, pp.162

응답자 중 대중교통 및 슈퍼마켓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하는 난민이 과반수가 넘지만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마트에 아기 분유 및 기저귀를 팔지 않아 멀리 있는 마트에 가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있었고 반면 대중교통이나 슈퍼마켓의 접근성이 떨어져도 자가용이 있어서 괜찮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직장까지의 출근시간은 평균 16 분 가량 소요되며 출근시간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는 35 분이며 대부분이 회사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대다수가 주거환경에 만족하였지만 한 응답자는 주변에 아랍어로 교육하는 유치원이 없어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답했다.

#### [사례 6-4]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아이랑 아랍어로 대화하지 못할까 두려워요. 인천에는 아랍어로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랍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이사를 가고 싶어요.”

-T 씨 (이집트)-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로 난민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느라 모국어를 잊고 부모와 소통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답변하였다. 서울보다 충남 지역이 주거환경과 취업 기회의 면에서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충남지역을 찾고 있다. 지역별로 국적별 아동의 인원을 확인하여 상당수의 아동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구사가능한 어린이 집 교사를 선발한다면 이 지역의 인적 자원인 난민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주거환경 개선 제안

### 1. 상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시스템 구축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집값으로 인해 난민들이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중 난색을 표한 하나가 바로 정부의 주거비 지원이다. 응답자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친구 집에 거주하나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2 가구의 난민들이 있었다. 20 명의 응답자 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난민 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난민들과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역센터가 연결하여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일방적인 재정지원보다 난민들이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농가들에게도 힘을 보태주어 서로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 가. 상생 서비스 구축

지역센터가 난민과 농가 두 그룹의 소셜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반으로 난민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농가는 난민이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하며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실행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 <제1안> 주거비 직접 수령

난민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지역센터는 농가로부터 주거비를 수금한 후 난민이 지역센터에서 주거비를 직접 수령한다.

제 1안은 사회적 주거의 개념이 부재하지만 지역센터의 업무 부담이 적고 수혜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다.

#### <제2안> 지역센터의 사회적 주거 마련

난민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지역센터는 농가로부터 수금한 주거비를 난민에게 직접 지원 하지 않고 지역센터에서 주거환경을 고려한 빈집을 찾아 사회적 주거를 마련한다.

제2안은 수혜자에게 현물지원을 지양하며 사회적 주거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도 빈집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

#### <제3안> 지자체의 보증금 지원

지자체에서 회수가 가능한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난민이 농가를 돕고 지역센터는 주거비를 수금하여 월세로 지급한다.

제3안은 제2안과 동일한 이점이 있으며 또한 보증금 지원을 통해 당장 주거가 없는 난민에게 제1,2안보다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 나.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해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어려워지면서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농가를 도와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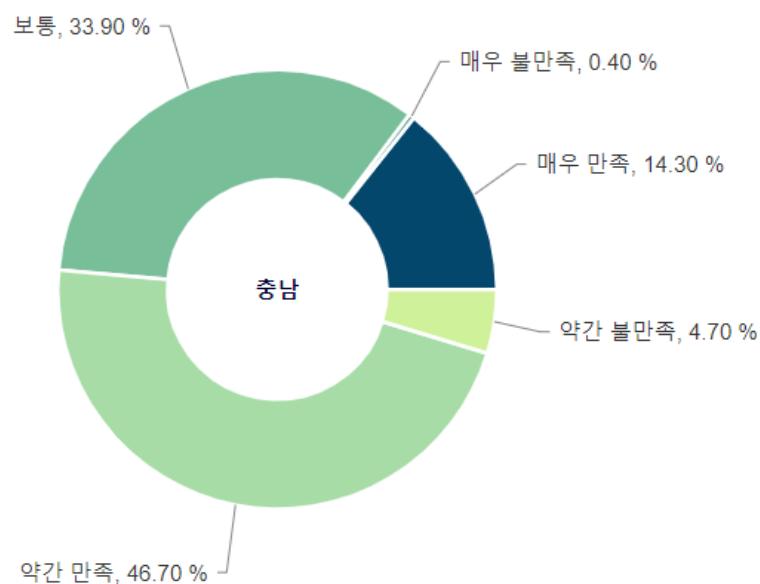
또한,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지역센터가 중앙에서 관리함으로써 난민들이 주거비를 받지 못하거나 착취당할 일이 없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의 수가 줄어든다. 상생 서비스는 난민 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1 위인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도 확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 III. 보건환경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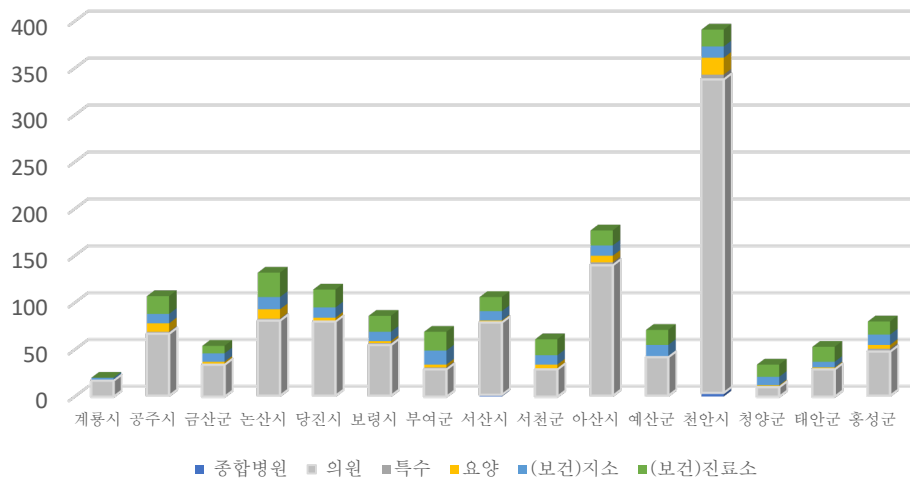
#### 1. 충남의 보건환경 현황

2019 년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의 병·의원 서비스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수치를 보이고 있다.<sup>19</sup> 충청남도 전체 의료기관수는 2,299 개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천안시에 종합병원 4 개원, 준종합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54 개원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어 아산시 준종합병원 9 개원, 139 개 의원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래프 6-1>충남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의료기관 현황(2018 년)



<sup>19</sup> 통계청, 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2018). <https://kosis.kr/>



의료기관 자원은 적정 의료인력의 수급과 국민의료비를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도민의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구수 대비 설치 배치되어 있다. <표 6-5>에서 보여지듯이 충남지역에는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약 2 천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운영되는데 특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보건소(지소)를 제외하고 난민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원수는 총 1,100 개원 이상 운영되고 있다. 천안지역을 제외하고 실제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산시와 논산시에도 각각 247 개원, 170 개원이 소재하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료접근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5>충남지역별 의료기관수(2018 년)

지역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한방 병원	한방 의원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계	13	44	1065	21	71	560	5	520	151	234
천안시	4	20	334	5	18	189	3	169	12	18
공주시	1	1	66	2	9	26	0	32	10	19
보령시	1	1	54	2	2	21	0	31	10	17
아산시	1	9	139	3	7	81	1	60	11	16
서산시	2	0	77	1	1	47	0	35	10	15
논산시	1	1	80	2	10	31	0	37	13	26
계룡시	0	1	17	0	1	12	0	12	2	0
당진시	1	4	79	0	4	45	0	32	11	19
금산군	0	1	34	0	3	14	0	16	9	8
부여군	0	2	29	2	3	16	0	17	15	20
서천군	0	1	29	1	4	11	0	15	10	17
청양군	0	1	10	0	2	6	0	6	9	13
홍성군	1	0	47	3	4	26	1	22	11	14
예산군	1	1	41	0	1	21	0	23	12	16
태안군	0	1	29	0	2	14	0	13	6	16

출처 : 통계청,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기관수를 근거로 저자 재구성. <https://kosis.kr/>

## 2. 난민의 건강검진

### 가.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 (1) 건강검진결과

<표 6-6>과 같이, 취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 15 명은 전년도에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는 5 명이다. 취업자 중 2 명은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응답자들의 말에 따르면 응답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도 전년도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직장을 가진 난민 중에 10 명(83%)은 전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현재 구직 중인 5 명(62.5%) 역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병원예약은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응답자의 대부분은 병원예약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한국어로 가능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진료과정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일부 한국어 의사소통이 서툰 응답자는 건강검진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사례6-5]

저는 이라크에서 왔구요, 홍성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김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일 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있지만 병원에 예약하기 어려워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예약을) 도와주고 있어요. (검진결과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나오는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랑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만약, 병원에서 아랍어 통역해주는 사람 있으면 더 많이 (의사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 이라크출신 A 씨 -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진료를 하지 않아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검사결과 및 질병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응답자의 15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4 명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1 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사례6-6]**

4년 전에, 저는 남편이랑 같이 시리아에서 왔어요.

남편은 폐차장에서 엔진수리 하는데 우리 남편이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알림장이랑 선생님 메시지 너무 어려워서 한국말 사전 찾아서 읽어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알림장은 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학교는 조금 나아요.

저는 시리아에서 영어선생님 했어요. 영어로 말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홍성에는 영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셋째 아이 임신 중이라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결과 얘기해 주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병원에서 통역이 없어서 집에 와서 필리핀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한국어 수업에 오고 싶은데 아들이 두 명이라서 남편이 쉬는 날만 수업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 많이 못 들었어요. 만약 한국어나 영어수업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요.

- 시리아출신 B 씨 -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취업을 한 난민이 치과병원에 방문하는 빈도는 낮으며, 응답자 20 명중 11 명은 치과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치과진료는 받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6-6> 건강검진관련 : 취업여부, 성별과의 관계

구분	취업자(12/20명)						구직자(8/20명)					
	남자 (8명)			여자 (4명)			남자 (6명)			여자 (2명)		
건강검진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무응답	실시	미실시	무응답	실시	미실시	무응답	실시	미실시	무응답
	7	1	0	3	1	0	4	2	0	1	1	0
치과진료 경험	3	5	0	2	2	0	4	2	0	0	2	0

구분	취업자 (응답자 12명)		구직자 (응답자 7명, 무응답 1)	
	남	여	남	여
병원예약가능	3/8	2/4	2/5	0/2
건강보험유무	7/8	3/4	3/5	2/2

## (2) 현재 질병 유무

현재 아픈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명이 답변하였고, 심장질환, 신장결석, 치통, 위통, 및 복통을 호소하였다. 질병과 관련하여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 곳에 취업한 경우 요통, 근육통 등 외과적인 불편을 호소하였다.

예산에 살고 있는 난민은 전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결석을 진단 받았으나 통증이 경미하여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 현재 치료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회사측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집트에서 온 난민여성 외에 3명의 난민들은 사랑니 발치로 치통을 호소하였다. 논산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은 건강검진결과 심장관련질환을 통보받았으나 신장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 경과에 대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 (3) 생활스트레스 요인

응답자의 대부분이 건강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건강과 돈에 관한 답변에 있어서 심층인터뷰 결과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하기가 어렵고, 추가 병원진료가 있을 경우 결근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사업주가 해고할 것을 두려워해서 추가검진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상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밝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문제와 더불어 근무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심층면접결과 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는 주로 건강이 우선 순위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직장과 경제적 지원은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난민들은 대부분이 현재 취업중이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타 생활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답변으로는 남편의 건강문제, 세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교육문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 사회적 지원 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례6-7]**

저는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 공부했어요. 대학교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는 논산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밤에 너무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2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너무 무거운 물건은 많이 들어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 공장에 먼지가 많이 나서 집에가면 목이 아파요. 일하는데 공기가 안좋아요.

작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사람들이랑 같이 받았는데 다른 검사 또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 안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직장인데 월급을 잘 줘서 계속 다니고 싶어요. 많이 아프지 않아서 지금은 약국 가서 약 사먹었어요. 더 많이 아프면 다시 병원에 갈꺼예요. 병원에 다시 오라는 말 공장에 친구들한테 말 안했어요. 계속 일 할꺼예요.

- C씨(아프가니스탄) -

<표6-7> 생활스트레스 요인

구분	가장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무응답
건강	8/20	2/20	6/20	4/20
돈(경제적지원)	7/20	0/20	9/20	4/20
언어	5/20	3/20	9/20	3/20
직장	5/20	2/20	9/20	4/20
자녀양육	4/20	0/20	8/20	8/20

선행 연구결과 덴버지역 RISE(Refugee Integration Survey and Evaluation)<sup>20</sup>와 비교하면, 덴버지역의 재정착 난민의 생활 스트레스는 “언어, 경제, 건강, 육아, 직장, 집안살림의 순”이었다. 기타 문제 가운데는 성년이 된 두 자녀들이 무직상태라는 것(1순위), 집주인과 의사소통이 안돼서 이사할 때 줘야하는 돈이 생긴 것(2순위), 세 자녀가 다 다른 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것,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이를 밤에 내두면 위험할까봐 걱정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4) 의료기관 방문시 애로사항

<표6-8>에서 보여지듯이, 의료기관의 위치를 모르는 응답자는 9명이었다. 2명은 병원

<sup>20</sup> 이호택 외, 『재정착난민 정책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법무부유역보고서, 2018, pp.155-157

의 위치는 알고 있으나 거리상 이용의 불편함이 있어 위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지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진료시 의료기관 등에서 통역서비스가 지원된다면 현재보다 진료가 수월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기관의 위치와 진료항목에 대한 보건 시스템은 숙지하고 있었다.

건강검진결과 현재의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있거나, 실제 불편한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아픈 곳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6명이었다. 일부 응답자는 추가검진을 요구받았으나 결국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사업주가 해고할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이 이상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밝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난민들에게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보다는 현재 직장을 잃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 건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사후 검진을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일부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보다는 약국의 처방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충남지역에는 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병·의원이외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의원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한방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난민들은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의학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난민뿐 아니라 지역사회 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다.

<표6-8> 의료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항목	매우 중요	보통	중요하지않음	무응답
치료비 걱정	5/20	2/20	6/20	7/20
실직에 대한 두려움	16/20	1/20	0/20	3/20
건강보험의 부재	10/20	1/20	0/20	9/20
병원의 위치 인지	9/20	0/20	3/20	8/20
진료시 의사소통	6/20	3/20	5/20	6/20

#### (5)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결과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응답자중 13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표6-9>에서 보여지듯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부 응답자중 논산지역에서 근무하는 난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대다수의 직원들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



다. 당일 면접인원 제한은 의무적으로 실천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않았고, 지역의 난민지원센터의 회의실을 대여하거나 감염위험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6-10>에서 보여지듯이 천안지역의 누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아산, 당진이 그 뒤를 이어 발생빈도가 높았다. 난민들도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 대한 추가질문으로 공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고위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난민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6-9> 코로나-19검사실시 여부 및 검사결과

구분	예 (N=13/20)		아니오	무응답
검사결과	음성	양성		
응답자수	13/13	0/13	6/20	1/20

<표 6-10> 시군별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

구분	계	천 안	공 주	보 령	아 산	서 산	논 산	계 룡	당 진	금 산	부 여	서 천	청 양	홍 성	예 산	태 안	기 타
계	373 5	133 8	157	161	712	311	100	26	388	48	79	97	78	103	46	55	36
사망	41	7	13	1	3	2	1	0	5	1	3	1	1	1	1	0	1
치료 중	108	24	1	2	26	33	7	0	2	2	2	2	0	2	3	2	0

출처: 충청남도 코로나 19, [www.chungnam.go.kr/coronaStatus](http://www.chungnam.go.kr/coronaStatus)

## IV. 보건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안

### 1. 난민건강 및 질병정보의 지역사회 공유

#### 가. 지역사회공유

##### (1) 지역사회의사협의회 활용

건강은 범분야 주제로서 난민들의 건강은 통합 과정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들의 출신국으로부터의 건강상태도 중요하지만 정착국인 국내에서도 시

기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염성 질환과 같이 지역사회의 과급적인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지역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의 편이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에는 한계가 보여진다. 충남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가 많은 당진에는 특수병원인 정신병원이 없다. 신경정신과는 무엇보다 대상자와의 오랜 소통이 중요하고 상호신뢰관계 속에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난민 양측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난민들이 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는 여성을 위한 부인과 질환 서비스가 추가로 요구된다.

난민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성공적인 예로 서울지역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봉사단은 개인분담금 납입이 어려운 미취업자 난민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민들에게 매주 무료진료를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방사선사회, 치과의사회와 함께 매주 진료과목을 달리하여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진료를 위한 통역서비스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사회 의사회와 의료기관 협의회 봉사단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2) 종합건강검진 후 일상적인 건강관리 지원

일상생활용어와는 달리 진료시 사용되는 의학용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일부 난민들의 질병은 출신국의 풍토, 문화 혹은 외상후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접근이 힘들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지원은 물론 비대면 방식으로 간단한 문진과 의료전문가들의 상담 소견이 이루어진다면 경미한 증상의 질환들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처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인터뷰 진행 중에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만아니라, 충남 도민의 일원이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의료혜택으

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정기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난민, 외국인 ‘정기검진의 날’ 지정

충남지역에는 2천 여개 이상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3만여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심층면접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난민들이 정기검진을 받는 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진료를 진행하는 일은 어렵다고 하였다. 재검진이 어려운 이유는 직장 내 결근, 수입 감소로 오는 부담감, 혹은 만일 질병이 있는 경우 직장 내 해고 등 이전의 직장생활의 이직 경험을 근거로 응답하였다. 사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음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주변에 밝히지 않고 지내는 일은 건강관리의 치명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매월 일정한 날에 난민·외국인 진료를 위한 ‘정기검진의 날’을 지정하여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슬림 여성을 위한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역 등) 인적자원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지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이 단순 이벤트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역별 순환방식으로 운영하며, 진료의 동선을 고려하여 의료지원을 위한 (가칭)사무국은 자율성이 확보된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진료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실시한다면 그 동안 난민들의 가장 큰 건강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이다. (가칭)사무국에서 처리범주를 넘는 의료지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 및 상급기관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중간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 나. 지역사회 지원인력 활용

### (1) 수준별 언어구사 능력을 반영한 외국어서비스 교육지원센터 확대

첫째, 기존의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외국어고등학교 통역봉사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 이외의 다국어 활용과 이주민들의 정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언어학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개발될 것이다. 또한, 수준별 언어를 반영한 외국어 서비스 지원 및 개발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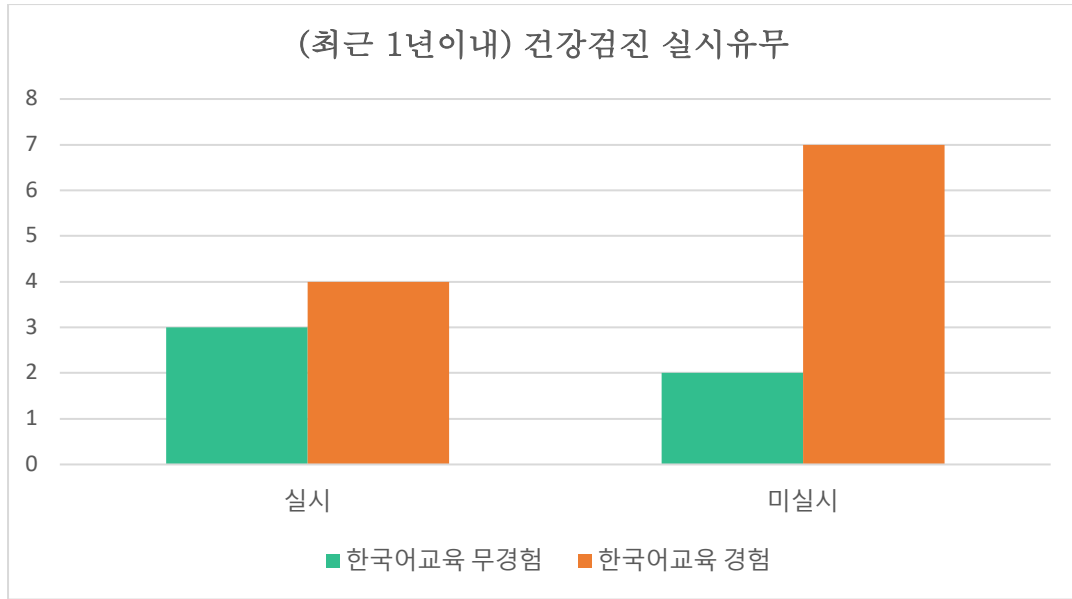
둘째, (가칭)외국어교육센터는 지역과제 해결형 코디네이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이 특별한 환경에 접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질병의 호소에 대한 표현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키우고, 배운 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언어학습 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센터를 확대 운영 지원한다.

셋째, (가칭)외국어교육센터는 난민대상 한국어 학습은 물론 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양방향 교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어 학습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한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외국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게도 대응적 차원에서 상황별 외국어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 (2) 다국어구술자 난민봉사활동지원

<그래프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난민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거나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한국인과의 대화를 실천적으로 경험해 본 난민들이 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평균적으로 난민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간단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의료기관에 다국어구술자(혹은 코디네이터)를 비상근으로 배치하고 난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언어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시 충남지역 의료기관에서 다국어지원이 가능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료서비스 이외에 외국어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봉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그래프 6-2〉 한국어교육 경험과 건강검진 실시 유무

### (3) 보건교육 연계

난민들의 생활실태 조사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한국인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그들이 처한 신분상의 제약과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는데 제한적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의 의료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소(14개소), 보건진료소(151개소) 및 보건진료소(234개소)와 연계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기른다. 다양한 문화와 지역생활에 적합한 난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 2. 직장의 협조

### 가. 원격지원

#### (1) 의료기관 내 다국어 서비스 지원

면접조사결과 의료기관 이용에 걸림돌의 하나는 언어문제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직장에서 작업지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병원에서 본인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의료기관과 직장의 원격 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내 다국어지원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협조가 필요하다.

[사례 비교] 사단법인 피난처와 글로벌 호프 희망의 마을 센터에서 국내 시리아와 예멘

난민들의 처방에 아랍어가 가능한 현지 의사와 국내 의사가 협업한 사례가 있다.<sup>21</sup>

## 나. 작업장 환경개선 협조

### (1) 질병사고 사전 예방

작업환경의 강도는 논산지역이 매우힘듦(4) 보통(3)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에서는 무겁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다. 작업환경의 강도는 논산지역이 매우힘듦(4) 보통(3)으로 작업강도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프6-3>



### (2)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공중보건의 배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구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한 의료서비스 대상자를 난민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건 및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관할지역내 일정한 시간과 의료서비스 지원 장소를 지정하여 난민을 위한 특별진료 방안을 모색한다.

<sup>21</sup>Ibid.pp.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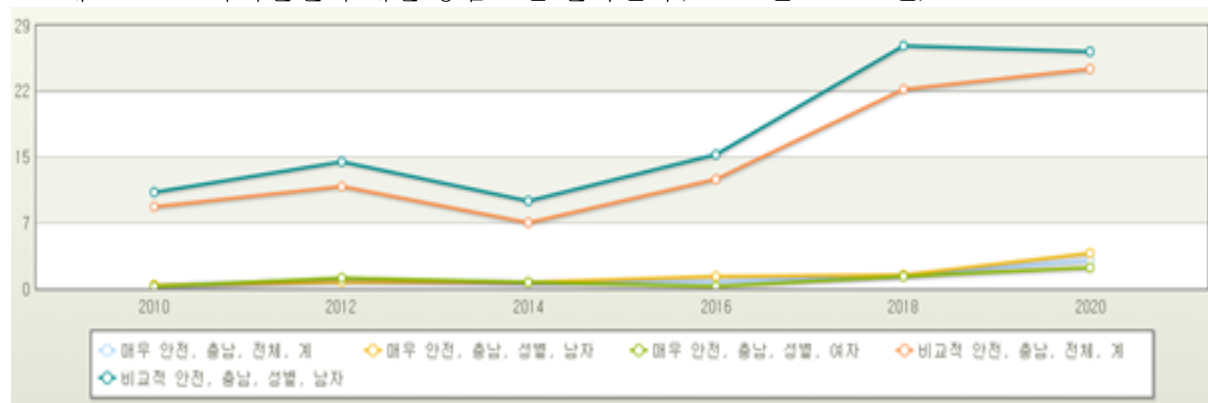
## V.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2015 년도 사회조결과에 따르면, 만 13 세 이상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중 이 지역이 자연재해, 범죄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분야에 안전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보통과 비교적 안전하다고 측정되었다. <그래프 6-4>에서 보여지듯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남·여의 답변이 모두 2016 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6-11>사회안전에 대한 충남도민 인식조사(2015 년)

구분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계	3.4	24.5	48.3	21.2	2.9
남자	4.0	26.6	46.2	20.2	3.0
여자	2.4	22.3	50.4	22.0	2.8

<그래프 6-4> 사회안전에 대한 충남도민 인식변화(2010 년-2020 년)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 1. 안전감에 관한 사항

#### 가. 집안 혹은 집밖에서의 안전감

##### (1) 안전감

집에서 또는 집밖에서 응답자 20명 (100%)이 모두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간혹 집 밖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한국어를 전혀 말하지 못하거나 거의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여자보다는 직장을 갖고 있는 일부 남성 응답자가 집밖에서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이들 남성 응답자들은 취업 중으로 바빠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체류기간이 2년 이상 지났어도 한국어 능력이 기초수준 이하였다.

## (2) 소방서 전화번호 인지 유무

월세지역, 주거지 주변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답변자는 없었고, 응급시(위급시)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 번호는 “119”라고 모두 답변하였다.

## (3) 한국사회에서의 범죄 피해경험

구체적으로는 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 느끼는 불편함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충남 지역사회에 대하여 친절하고 편안하다는 답변자가 대다수였다. 또한 범죄피해경험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하였고, 밤길 위협 등 구체적 불안 체험을 호소한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충남지역에서는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집안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집밖에서도 안전하다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모두 범죄피해 경험도 전혀 없었다.

충남 도민들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난민의 심층면담 중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각 지역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 2. 차별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 가. 차별경험

#### (1) 응답결과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정착된 미국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미국 덴버지역 RISE 조사결과에서 97.8%가 차별 경험이었다고 한 반면, 한국에서는 7명이 전혀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차별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6명은 가끔 혹은 때때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카렌난민은 우리와 외모가 비슷한 관계로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고, 주변에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었을 뿐 굳이 난민



이라고 알려지지 않아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다. 반면, 제주 예멘난민 같은 경우는 외모, 종교가 다르고, 난민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수용논란과 차별이 벌어진 바 있다.<sup>22</sup>

<표6-12> 한국생활 중 차별경험 유무

	매일	자주	정기적	가끔	거의없음	잘모르겠음	무응답
응답자수	1/20	0/20	1/20	7/20	3/20	4/20	4/20

## (2) 심층면접 조사결과

<표6-12>에서 보여지듯이, 전체 응답자중 7명은 가끔씩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월세를 한 달 밀려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던 경우와 직장 내에서 경험한 것으로 추측된다.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는 대체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서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고 취업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사례6-4]

저는 당진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했어요. 한국에 온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시골에 여자 외국인이 많이 없지만 혼자서 길을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길을 못 찾을때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다른 난민들과 이야기 나눌 때,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난민신청했는데 사람들이 난민 안좋아해서 난민인정 많이 안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60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구요, 그래서 공장기숙사비를 얼마 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난민이라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많이 적어요. 저는 난민으로 빨리 인정받고 싶어요.

- 민주콩고 D씨-

정기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한 또 다른 응답자는 구미에서 충남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서술식 답변 내용은 시골을 좋아하고 지역이

<sup>22</sup> Ibid. p.197-198.

조용해서 좋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충남지역으로 이주하기 이전 지역에서의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매일 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자는 충남 거주 기간이 14개월이며, 당진에 위치한 공장에서 주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어 직장 내 차별을 의심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나쁜 경험을 했다는 구술식 답변으로는 인천지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한 차례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충남지역에서 직장을 실직할 경우 안정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세가 밀려서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실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들과 마찰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시골 사람들이 도시보다 인심이 좋다고 답변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는 차별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 반면, 체류기간 2~4년의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 VI 안전에 관한 제안

### 1. 사회내에서의 안정감

#### 가. 안정감에 대한 변화

일반적으로 한국말이 서툰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없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표6-13>에서와 같이 한국사회에 대한 안전감에 대한 변화는 출신국별, 체류기간별로 상이한 점을 보인다. 다만, <표6-14>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응답자의 사회적 참여도 및 동족간의 의사소통 유무에 따라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6-13> 체류기간별 차별경험

체류기간	차별경험		응답자(예) 출신국
	예	아니오	
1년 미만	0/20	3/20	없음
1이상-2년 미만	1/20	2/20	민주콩고
2이상-3년 미만	3/20	2/20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3년 이상	5/20	4/20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계	9/20	11/20	

즉,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동족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Facebook, Whatsapp,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가끔씩 혹은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동족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오직 전화로만 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지역내 동족행사, 충남지역 봉사활동,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표6-14>참조

개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도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실과 깊은 유대관계가 있고, 대부분의 난민들은 난민신청절차부터 심사결과를 받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차별경험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근거를 들 수 있다. 더불어, 전쟁과 내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수용국인 한국에서 역시 난민신청불허와 피부색,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을 근거로 응답하였다.

이들이 비록 충청남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권 취득의 희망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한국시민권을 취득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표6-14>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의 사회적 참여여부

구분	예	아니오
단체활동참여경험 유무	없음	20/20
봉사활동경험 유무	없음	20/20

<표 6-15>에서 보여지듯이 난민들은 출신국의 가족소식이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소식을 과반수 이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재정착한 충남지역

에서는 동족간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들 사이에 동족에 대한 소속감은 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표6-15> 동족과의 의사소통 유무(복수응답)

구분	예			무응답
이용수단	Facebook, SNS	Whatsapp	전화	
응답자수	8/20	10/20	4/20	3/20

## 2.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안

### 가. 난민의 사회기여 참여지원

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사소통과 어울림을 강화하는 방안은 난민들이 아직 드러나지 못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충남에서 난민의 사회기여활동과 같은 적극적 캠페인을 통하여 난민들이 충남에서 지역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사회적 안정망 설치

#### (1) 거주형 다문화공간 설치를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충남 거주 난민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도시처럼 치열하는 경쟁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자본가들을 통해 면접 후 곧바로 채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지인이 이미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서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방 형태의 ‘거주형 다문화공간’을 만들어 난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취업 및 노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공간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유지시켜주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

이 거주형 다문화공간은 다양한 출신국으로부터 재정착한 난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재창출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시적 생활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도민들에게는 다문화를 수용해 나가고 있는 충청남도의 이국적인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지 불명확으로 인한 난민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기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난민들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본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그룹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난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정착 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즉, 무료진료서비스, 다국어통역지원, 생활정보공유 등을 위한 다문화공간을 거주형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서 이 곳에 거주하면서 난민의 충남기반 자립도가 얼마만에 늘어나는지 ‘리빙랩 생활 실험’을 통해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 자원봉사, 단계별 언어교육, 자녀교육 및 지역사회봉사활동-들은 어떤 것들인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구인과 취직을 위한 지역경제 활동지원을 위한 단계에서는 무엇이 시급한 문제이며 주민체감형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리빙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 (2) 갈등해소 방안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난민은 농가지원, 공장취업, 홍성지역의 축산업 분야, 논산지역의 생산직 근로자이다. 상당수가 난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인 태도는 제거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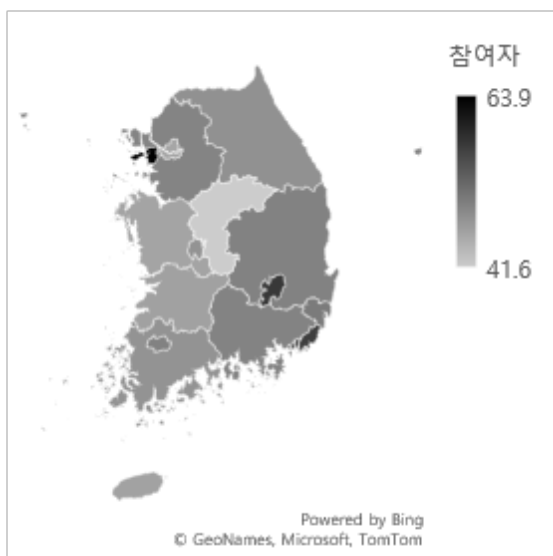
<그래프6-5>에서 나타나듯이 만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각각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여부와 참여단체를 조사한 결과, 충남지역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활동 참여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반면 이익단체 혹은 정치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은 전국에서 활발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모임이나 친목모임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 활동은 평균이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게 확인되었다(왼쪽그래프 참조). 반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의 활동이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 중에서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충북, 충남이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에 높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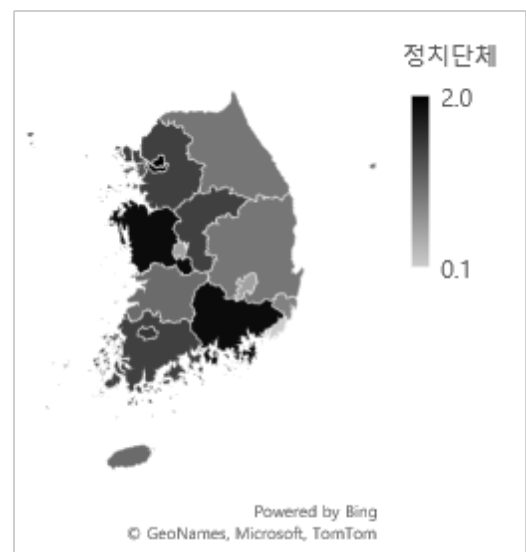
도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소속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도 역시 감소할 것이다. 충남은 노후시설개선,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2010년대 후반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지난 4개월간 충남의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지역의 경제·문화의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난민을 소외시하지 않고 상호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는 도민의 몫인 것이다. 난민들이 Facebook, SNS등을 통해 본국이나 동족 간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계속 방치하기 보다는 난민들이 지역에서 안에서 삶의 에너지가 공유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공중심의 다문화 지원프로그램을 시민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난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면 건강한 다문화 공간이 충남지역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6-5> 사회단체 참여율 비교(2017년)

친목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율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참여율



## 다. 해외사례

[인용] 네덜란드 스타트블럭 리커하벤 프로젝트<sup>23 24</sup>

스타트블럭 리커하벤(Startblok Riekerhaven)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뉴웨스트에 위치한 주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18-27세의 565명의 입주자가 거주한다. 입주자들은 네덜란드인과 난민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7월 1일자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초기 태동부터 암스테르담 지방정부, 주택임대업체, 주택관리업체, 난민 관련 기구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태동했다.

스타트블럭 리커하벤은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으로 지어졌다. 이 프로젝트에서 463명은 1인 스튜디오(원룸)에, 102명은 방 2개 및 3개와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에 거주한다. 스튜디오에는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스튜디오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 16-32명당 한 곳의 공용 거실과 공용 주방이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자가관리(self-management)이다. 입주자들은 복도를 공유하는 16-32명의 입주자들끼리 리빙그룹(living group)을 형성하고, 각 리빙그룹에는 1명 혹은 2명의 관리자(hallway manager)가 배정되어 있다. 관리자는 보통 네덜란드인 1명, 난민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리빙그룹 내의 위생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입주자들은 자가관리 원칙에 따라 보통 한주씩 돌아가며 복도 및 공용공간의 청소를 맡는데,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자가 점검한다. 또한 소음 등 공동생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이유로, 관리자는 매월 50유로의 수고비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자가조직(self-organization)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리빙그룹 관리자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ker)들이 있다. 이들은 리빙그룹 관리자들을

<sup>23</sup> Ibid. p.169.

<sup>24</sup> 김규희.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발표자료 Syrian Refugees in Amsterdam: A Look into Their Home Experiences and Home-Making Strategies (Kim & Smets, July 15-21, 2018)를 참고. <https://startblokkriekerhaven.nl/>

관리함과 더불어, 프로젝트 전반을 운영한다. 이들 역시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의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기도 하고, 주말을 이용해 영화상영, 문화교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유지관리도 자치조직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주자들은 소정의 수고비를 받는다.

이러한 스타트블럭 리커하벤의 운영방식은 공동체 의식 함양,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시청, 주택임대업체, 주택관리업체, 난민관련기구 등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들이 현지인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원활히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인 입주자의 경우, 이 프로젝트에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오를 담은 지원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프로젝트는 초창기부터 BBC, Het Parool 등 국내외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고, 난민과 현지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 나가는 모습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가 깊은 우정으로 발전되어 유의미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부 적극적인 난민들은 쉽게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지만, 소극적인 난민들은 방에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일부 네덜란드 입주자들은 난민들과 적극적으로 교우관계를 맺지만, 많은 경우 바쁜 일상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첫째, 난민들이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수용국의 또래집단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 둘째, 난민 문제에 대응하면서 수용국의 사회문제(청년주거)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제 7 장 참여와 사회관계

## I. 참여와 사회관계 실태조사 결과

난민 정착의 건강성을 알아보는 척도로 참여와 사회관계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었다. 본 설문을 통해 충남의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난민들이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와 가까워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 소속감과 정체성

#### 가. 동족에 대한 소속감과 커뮤니티 활동현황

<표 7-1> 동족간의 교류 현황

구분	동족간의 교류	동족간의 정보교류	동족문화행사 참여	소속감	종교행사참여
예	10/20	8/20	2/20	8/20	5/20
아니오	10/20	12/20	18/20	12/20	15/20

##### (1) 동족간의 교류

응답자 중 10 명은 동족들과 교류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산업체가 많은 충남지역의 특성상 취업의 기회로 정착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구하게 된 계기도 동족의 안내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동족간의 교류는 한국 내에서의 동족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본국이나 제 3 국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은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사례 7-1]

질문: 충남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답변: “제 지인이 충남에 일자리가 있다고 알려줘서 오게되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N 씨 (아프가니스탄)-

## (2) 동족간의 정보교류

동족간의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8 명이 동족과 생활 정보 및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에 이미 오래된 동족에게 도움이나, 정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족간의 정보교류의 순기능은 실제 그들이 자신의 거주 문제, 생활 문제, 체류 문제 등의 이슈가 있을 때에 물어볼 곳이 있다는 점에서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 오게 된 한 응답자의 경우, 이곳에 직업이 많다는 정보를 다른 동족을 통해 전달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사례 7-1 참고). 자신의 작업장에 동족이 있을 경우, 또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업무 숙지 및 생활 양식은 훨씬 빠르게 안정된다.

반대로 동족간의 정보교류의 역기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동족들을 통해 진짜인 것처럼 전달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이 이야기 해주는 정확한 정보보다, 동족이 설명하는 것을 더 믿는 사례도 있었다. 동족간의 정보교류에 ‘예’라고 답한 난민 8 인중 1 인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난민들로, 실제 이들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동족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

### [사례 7-2]

답변자 : “인천에는 난민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천에서 살게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 해주었어요.”

질문: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누가 그런 정보를 이야기 해줘요?

답변 : 같은 이집트 친구(난민)이 알려줬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T 씨(이집트) -

## (3) 동족 문화의 행사 참여

설문 결과 2 명이 ‘동족의 문화행사에 참여한다’ 라고 답변했다. 동족문화행사가 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나, 시간대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일상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다수 난민들의 근무환경은 제조업의 생산직 분야로, 2-3 교대 방식의 시간대에 근무하기도 하고, 주말에 근무가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이 일하는 시간도 기본 근무시간인 8 시간 이상일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충남지역 거주 난민보다 서울·경기 지역에 모여서 사는 동족들은 음식, 문화적 접근을 쉽게 하고 있는 반면, 충남지역에서는 난민출신국의 문화행사 및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 (4) 동족에 대한 소속감

응답자 중 12 명의 난민이 자신의 동족에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소속감이 있다고 답변을 한 이들은 모두 예멘 출신의 난민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된(인도적 체류자 : 예멘, 시리아) 경우 개인적인 난민 사유를 가진 이들과 달리, 한국 내에서도 자신의 동족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난민들 중 동족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 난민은 1 인으로, 실제 동족 문화 행사 및 종교모임을 통해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동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한 10 인의 난민 중 소속감이 있다고 답변한 난민은 4 명으로 실제 난민들이 본국문화 행사와 동족과의 연락을 통해서만 소속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5) 동족의 종교행사 참여

15 명의 난민이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 (3)번 문항 동족 문화의 행사 참여의 답변과 같은 맥락 안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 (6) 동족 및 가족과의 연락 방식

<표 7-2> 동족 및 가족과의 연락 방식 (복수응답)

구분	Facebook	Whatsapp 등 SNS	전화	무응답
응답자수	8/20	10/20	4/20	3/20

\*<표 6-15>와 동일

동족 및 가족과의 연락 방식은 4 명은 직접 통화하며 연락한다고 답하였으며, 페이스북이나 기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부를 주고 받는다는 이들은 8 명,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는 이들은 10 명이다. 난민의 특성상 긴급하게 본국을 떠나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들에게 가족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가족이 박해주체가 되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비호국인 한국에서도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자신들이 번 수입을 출신국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 나. 커뮤니티 활동 현황

### (1) 커뮤니티 활동

충남지역의 난민들은 실제 살고있는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동일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한국에 사는 동족을 만나고 싶을 때에는 그들의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으로 시간을 내어 가는 방법 외에 충남 지역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적었다. 응답자 중 1 인은 자신의 근무지에 자신이 살던 지역 출신의 외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다른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자신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그가 동족이나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잠시 다녀오는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사례 7-3]

“우리 회사랑 우리집 근처에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피난처에 있었을 때 말고는 커뮤니티 활동은 없었고, 지금은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다른 지역에 가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처에 불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게 될텐데. 지금은 많이 외롭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민주콩고 D 씨-

### (2) 난민 사유에 의한 제한적 활동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난민 사유에 따라 동족과의 교류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응답자들 중 정치적 사유 및 전쟁 사유로 온 예멘, 또는 이집트의 아랍어권 지역에서 온 난민들의 경우는 동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잘 도우며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외 종교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이 된 이들의 경우 같은 소속집단 내에서 박해를 경험했던 이력이 있기에, 실제 자신의 가족에게 조차 연락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동일 국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거나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립되어 있었다. 종교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난민의 경우 동족간의 또는 동일한 종교 안의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 [사례 7-4]

“저는 가족들하고 가끔씩 연락하지만 제 아내는 가족들과 연락조차 하지 못해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본국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잘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연락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 이집트 출신 B 씨 -

## 2. 한국사회정착

### 가. 한국사회정착

<표 7-3> 한국사회와의 교류현황

구분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생활정보	한국문화행사경험
예	11/20	9/20	10/20
아니오	9/20	11/20	10/20

#### (1) 한국인과의 교류

충남지역 거주 난민들 중 11 명이 자신들이 한국인들과 교류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외 9 명은 업무 외에 따로 한국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인과의 교류가 없다고 답한 사람 중 1 인은 충남지역에 거주한 지 7 년이 넘었지만 한국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위 답변을 통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다고 하여 한국인과의 관계 및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며, 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적극성을 가지고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난민이 고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2) 한국생활정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는 것에 있어서 9 명만이 정보를 얻고 있다고 대답했다. 답변자들 중 실제 한국인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인과 교류가 있는 난민들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직접적으로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받아 실행하는 것에 익숙했다.

## (3) 한국문화행사참여 경험

한국 문화행사에 참여해보았다고 답했던 난민은 10 명이었다. 다만, 특별히 충남지역에서 참여한 문화행사로 국한되지는 않았고,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답변했다.

## 나. 한국인과의 관계

<표 7-4>에서 보여지듯이 실제 난민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국인들과 어떻게 풀어 갔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말해준다. 내국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 다양한 영역에 있어, 난민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제한적인 면이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국인과는 다른 ‘타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한국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척도를 4 단계로 나누어, 1)어려움(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2)회사나 재정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3)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4)서로 집을 방문하며 교류한 경험이 있는지의 구분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았다.

<표 7-4> 고민상담 및 대인관계

구분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회사나, 재정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지	서로의 집 방문 및 교류한 경험이 있는지
예	8/20	5/20	9/20	10/20
아니오	12/20	15/20	11/20	10/20

### (1)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단계

문제가 생겼을 때에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했던 응답자는 8 명으로, 실제 그들과 친구가 된 한국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아준다고 볼 수 있다. 12 명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답함으로, 실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할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이로인해 고립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자 중 1 인은 한국인은 물론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전혀 없다고 답변한 난민이 있었다.

### (2) 회사나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단계

재정적인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에 있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5 명이다. 대부분 난민이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직업에 대한 상담을 위해 사단법인 피난처를 방문하는 난민들의 주요 이슈들은 계약 문제, 급여문제, 소통의 문제, 직업 문화 및 윤리의 문제 등이 있었다.

충남지역에서 거주하는 난민들과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20명의 응답자 중 차별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난민의 수는 16 명으로, 이 중 회사 문제와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에 답변한 사람은 8 명이다. (표 6-12 참고) 실제 그들이 이직을 준비해야하거나, 자신의 근무지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거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적었다. 실제 자신이 회사로부터 자신이 일한만큼의 급여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을 의논하고 실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없는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떠한 곳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계약서 상의 문제는 없는 지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 (3)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지 여부

어려움이 생길 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난민은 9 명이었다. 실제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미 충남지역에서 7 년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경우를 보아 실제 난민들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변과 소통하기 위해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다면 오랫동안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4) 한국인 친구의 집을 서로 방문하며 교류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한국인과 교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한국인의 집에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인과 교류하며 방문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이다. 한국인의 집에 방문 경험이 있는 난민들의 수(10 인)가 한국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난민의 수(8 인)보다 많다. 따라서 한국사람과 집에 다닐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의 답변이라기보다, 단순히 한국 가정을 방문해 본 경험한 것으로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일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사람과 난민들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다. 한국인과 난민 정착의 관계성

#### (1) 난민들의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성 필요

상기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착에 대한 활성화는 난민과 한국인과의 관계에 상호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그들이 한국인과 소통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한 난민들은 이 사회에 이방인으로 남을 것이고,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는 단순노무자로서만 살아갈 것이다. 조사에 응한 난민들 중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있는 난민들의 경우는 훨씬 여유롭게 한국사회를 보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한국인들과 교류없이 본인들의 생업에만 매진하는 난민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한국문화의 접근방식 개선 필요

한국인과의 교류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기회가 이들로 하여금 이 사회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점을 경험했을 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들이 비호국에서 정착해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삶을 규모있게 계획하고자 하는 생각과 달리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할 생계의 문제에 집중해 언어, 문화교육, 한국사람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회들을 찾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3) 한국문화 체험 및 경험의 취약점

충남지역의 난민들이 대부분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부터 이주해 온 경우를 생각해볼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접할 한국인들은 직장에서 만난 한국인일 것이다. 대부분 제조업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자들이 많아 난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보다 단순한 업무 지시 및 일을 진행하기 위한 용어 정도로만 한국어를 습득하는 수준에서 있다보니 실제 한국인과의 교류나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 3. 사회참여

#### 가. 난민관련 사회활동 참여

<표 7-5> 단체활동 참여경험

구분	있음	없음
단체활동 참여경험 (무응답: 3)	3/17	14/17
봉사활동 참여경험 (무응답: 1)	2/19	17/19
난민옹호활동 참여경험 (무응답: 4)	1/16	15/16

<표 7-5>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단체활동, 봉사활동 및 난민옹호활동 모두 참여 경험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단체활동 참여경험을 묻는 응답자에는 피난처 숙소에서 머물렀던 응답자와 경기도 소재 동족 교회에 소속된 응답자를 포함하였다. 이들은 각각 사단법인 피난처와 교회에서 주관한 단체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충남지역에서 진행된 단체활동에 참여한 응답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 해당 응답자는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주최한 크리스마스 행사와 인근 공원에서 주최된 작은 축제에 각각 한 차례씩 참여한 것으로 답변했다. 해당 응답자의 한국체류기간이 6년인 점을 고려할 때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극히 적은 빈도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봉사활동 또한 참여가 어려웠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명이지만, 이 또한 한 명은 피난처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낮은 봉사활동 참여 정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대다수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보고 싶다는 답변한 점에서 난민들의 사회참여를 향한 의지가 돋보였다.

난민옹호활동의 경우 1 명의 응답자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활동 및 봉사활동과 동일하게 장시간 근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난민옹호활동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난민옹호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직된다. 1) 난민지원단체들이 캠페인을 조직하여 난민들의 참여를 촉구 혹은 홍보하거나 2)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난민들의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어 시민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다. 충남지역의 경우 난민권익 향상에 초점을 둔 난민지원단체가 없으며, 결속력 있는 난민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난민들이 단체활동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난민옹호 활동이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시민권 취득

<표 7-6> 한국 시민권 취득 희망여부

구분	있음	모르겠음
한국 시민권 취득계획 (무응답:1)	16/19	3/19

응답자 3 명과 무응답 1 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한국 시민권 취득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생활에 안전함을 느끼고 있고, 한국어 공부와 전문성을 키우길 원했다. 또한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된다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본국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난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자아실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례 7-5]

저는 파키스탄에서 4 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서 지내기 좋아요. 지금은 보령에서 공장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줘요. 지금은 비자 문제가 제일 걱정되요. 비자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곧 난민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가족들이랑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 파키스탄 출신 A 씨 -

#### [사례 7-6]

저는 예멘에서 왔어요. 지금은 일을 구하려고 논산으로 왔어요. 아직은 일을 못구했어요. 논산에서는 지내기가 어려운 건 없는데, 가족이 없어서 쉴 때는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아요. 한국에서는 나쁜 기억이 없어요. (한국 시민권 받아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시민권도 받고 싶어요.

- 예멘 출신 B 씨 -

반면, 시민권 취득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현재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들 3 명의 응답자가 갖는 공통점은 극히 적은 한국인과의 교류, 소속감을 느낄 동족 사회의 부재, 주 평균 60 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이다. 특히 한 응답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의과대학생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공장교대근무자로 지내고 있어 본국과 한국생활 사이의 괴리감을 표한 바 있다. 이처럼 생존에 매몰되어 장기적 목표를 가질 수 없다는 박탈감과 고립감이 난민들의 사회통합 의지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에서 난민지위심사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본인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여도, 한국의 저조한 난민인정률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할 거라고 답변한 난민도 있었다.

## 4. 국내 다른 외국인 집단과의 비교

### 가. 국내 타 지역 난민 집단과의 비교

국내의 타 지역중 난민들이 대거 주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이태원, 노량진, 경기도의 부천, 동두천, 양주, 안산, 평택 지역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충남지역의 난민들과 비슷하게 취업을 이유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들이 살기 쉬운 환경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분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 지역에 사는 난민들의 경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문화센터, 지역 병원의 지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익숙해져 있으며, 동족 및 같은 언어권 커뮤니티 안에 속해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수동적이다. 집 근처에서 일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며, 돈을 적게 벌더라도 동족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충남지역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밀집도가 높고 수도권에 비해 훨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나,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곳으로 여기기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에 비해 동족 그룹이 많지 않아, 다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출신국 문화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권에 비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의 식재료를 사기 위해 혹은 원하는 음식을 먹기위해 서울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일부 응답자는 자신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자신의 문화(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나. 체류자격에 따른 비교

충남지역 난민들이 동족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에 낮은 참여 정도를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타 체류자격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군은 충남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분류: 취업 관련 체류자격 29,157 명(46.73%)과 결혼 관련 체류자격 8,886 명(14.24%)이다. 이때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E1(교수) - E7(특정활동), E9(비전문 취업), E10(선원), H2(방문 취업)을 포함하고, 결혼 관련 체류자격은 F2-1(국민배우자), F5-2(국민배우자), F6-1(결혼이민), F6-2(자녀양육), F6-3(영주)를 포함했다. (충남지역 난민 관련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1,934 명으로 충남지역 외국인 중 3.1%에 해당한다.<sup>25)</sup>)

### (1) 취업 관련 체류자격과의 차이점

난민과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취업 업종 제한, 발급대상 등 수 많은 차이점을 갖지만 이 중에서 체류 기간 확정 여부에 집중하여 비교한다. 입국 후 3년 만기 및 조건부 1년 10개월 연장을 최대로 하는 E9, H2 비자와 달리 난민신청자 (G1-5)비자, 인도적 체류자(G1-6)는 체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난민인정심사 절차 혹은 인도적 체류를 허락한 사유가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장 가능하다. (본 조사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난민인정자(F2-4)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체류 기간의 불확실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강화하여 난민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의 한국 사회통합 보다 당장의 생계유지에 몰두하게 한다.

<sup>25)</sup> 법무부, 등록외국인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2021. 3. 31)

또한 가족부양의 책임도 난민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고려사항 중 고수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물론 취업 관련 체류자격 소지자 또한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지만, 예멘과 같이 내전으로 인해 국가 산업이 황폐화되어 난민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제 3 국 피난 중인 경우 한국 체류중인 난민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되기에 본국송금(remittance)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 예로 <표 4-3> 난민 주당 근무시간에 따르면, 현재 재직상태이며 주 평균 근무시간을 대답한 설문참여자 10 명 중 5 명이 주 6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의 난민들이 연장근로가 많은 업체를 선택하거나 교대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난처가 지원하는 난민의 말에 따르면 구직에 성공한 이후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직업알선업체를 재차 방문하는 난민들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난민이 취업난으로 고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사항이다.

장시간 근로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종의 경우 자국민들의 기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동료간의 소통이 적다. 설문에 참여한 난민에 따르면 주야 2 교대로 인해 하루 12 시간씩 일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는 1 명뿐이며 그마저도 다른 방에서 일하기에 상호간 교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난민들은 체류기간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기에 체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 장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도한 업무시간에 치인 난민은 동족 활동에 참여하거나 한국인을 만날 시간이 부족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결혼이민 비자와의 차이점

- 결혼이민비자 :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이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 제 3 호, 2007.5.17.제정). 귀하허가를 받지 않은 결혼이주민을 ‘결혼이민자’로 사용한다.<sup>26</sup>

<sup>26</sup>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https://www.law.go.kr/>

결혼이민 비자는 상기 언급한 취업관련 비자와 비교하여도 장기간의 체류를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라는 호칭이 별도로 존재하며,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다문화센터 등 해당 가정을 위한 지원이 일상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도민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지원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 하는 다누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몽골어, 필리핀어를 포함한 13개 언어 통역 서비스와 함께 생활 전반에 대한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습을 상시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과 적응을 돕고 지역도서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양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차원에서도 한국어 수업 뿐 아니라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sup>27</sup>

위와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 양육 중이기에 이미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도 단순노무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이주민의 한국 국적취득에 우선순위를 두어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등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은 난민에 비해 전폭적인 제도적, 일상적 지원을 받고 있기에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많고, 사회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5. 해외 난민과 비교

### 가. 해외 난민 사회통합 활동을 통한 충남의 가능성

이미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수용국(비호국)들의 경우, 난민이 스스로의 문화(고유의 정체성)를 버리지 않으면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모델들을

<sup>27</sup>허지영(시민리포터) “요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모이세 문화강좌” 음식 공감. 천안아산신문(2019.10.31).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



많이 제시하며 실행해오고 있는데, 그 목적은 난민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잘 정착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외국인 혐오도를 낮추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제한된 지역에 다수의 난민들이 들어온 ‘제주예멘’ 사례를 통해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긴장감을 표했는데, 실제 다문화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외국인을 수용해온 충남지역에서 성숙한 사회통합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나. 해외 난민 사회통합 활동

### (1) 지역사회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다양한 해외에서의 난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중 다수는 난민 본국 음식을 통한 소통방식이었으며, 독일에서는 실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난민들을 직접 만나고 문화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난민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등에 적극적인 모임을 주도하여 지역주민과 난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있었으며, 유사 사례로 한국에서도 노량진의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지역 라디오 방송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 및 음식을 소개하는 등, 난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국가에서 진행하는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 난민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수영, 달리기, 댄스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난민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신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sup>28</sup>

### (2) 지역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긴급도움 프로토콜 형성

포르투갈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들이 난민들의 긴급한 상황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

<sup>28</sup> Natalia Banulescu-Bogdan, 2020 Beyond Work: Reducing Social Isolation For Refugee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Newcomers.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CM-Social-Isolation\\_FINALWEB.pdf](https://www.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CM-Social-Isolation_FINALWEB.pdf)



적극적으로 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PAR 라는 단체에서는 90 개의 그룹들과 이 일을 진행했는데, 35 개의 재단과, 26 개의 종교단체, 20 개의 사회연대, 6 개의 기업, 5 곳의 학교, 2 개의 시의회 및 6,000 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 (3) 지역 기업들을 위한 상생방안 제시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의 기업들에게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고용장려 정책 권면하여 지방 정부와 대학이 난민들의 언어 및 취업교육을 돕는 일들에 나섰다. 이것은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 (4) 미취업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영역

다양한 국가에서 난민들의 초기 정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난민 그룹 안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업하지 못하는 이들, 또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 관련된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취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노인, 아이들을 돌보며 취업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여성, 신체적으로 고문당해 취업에 제한이 있는 난민 등)

### (5) 난민 커뮤니티를 위한 열린공간의 사례

캐나다, 스위스 등은 주정부와 일하며 새롭게 오는 난민들에게 시립도서관을 개방해, 인터넷, 컴퓨터 등을 사용하게하며 같은 언어군의 난민들이 자국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29</sup>

국내에서는 아프리카권 출신국의 난민들이 자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구하기 위해 사단법인 피난처에 공간을 요청하거나 주변 교회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자주 있었으며, 실제 그것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지역기관들이 있어왔다.

---

<sup>29</sup> Sandra Mateus, Filipa Pinho. "Welcome!"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already existing for refugees' welcoming and first inclusion. PandPAS. 2018.  
[http://www.pandpasproject.eu/wp-content/uploads/2018/10/Good\\_Practices.pdf](http://www.pandpasproject.eu/wp-content/uploads/2018/10/Good_Practices.pdf)

## 6. 난민인식과 사회관계 실태

대한민국은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1992 년에 가입한 이후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1994 년부터 비호를 구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난민지위인정 심사를 진행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피난처를 구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해 2017 년 한 해 동안 만 건에 근접한 난민신청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사회적 관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2017 년 12 월 12 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저가항공사(AirAsia X Berhad) 직항 노선이 개설되자 6 개월 사이 549 명의 예멘국적인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하였고, 이에 대한 거센 반대와 함께 난민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2018 년 6 월 13 일자) 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한 달 만에 714,875 명의 참여를 이끌었다.<sup>30</sup> 중앙일보가 진행하고, 6,630 명이 응답한 국내 입국 난민처우에 대한 조사에선 73%의 응답자가 사회불안을 이유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송병덕, 2019).<sup>31</sup> 난민 반대세력은 ‘가짜’ 난민, 난민제도 ‘남용’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온라인상에서 제주도 입국 예멘국적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측을 노골적으로 혐오하거나 인신공격을 통해 비난했다 (강진구, 2019).<sup>32</sup> 그 후 3 년이 지난 2021 년, 난민지위를 신청했던 대부분의 예멘사람들은 인도적체류지위를 허가 받았지만, 여전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에 잠재되어 있으며, 이에 수반해 정부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장기체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전반의 반난민정서에 더해 충남지역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서 또한 차가워지고 있다. 충청남도청에서 발간한 ‘2019 충남 사회조사’ 에 따르면 국제이주로 정착한 이주민의 인권존중도는 2014 년 4.9 점에서 2017 년 5.69 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 년 5.45 점, 2019 년 5.27 점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0 점 만점).<sup>33</sup>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낮은 인식과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30</sup>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sup>31</sup> 송병덕 (2019) 제주 난민 사태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방안 제언,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pp.313-336

<sup>32</sup> 강진구, 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다문화콘텐츠 연구, 30, pp103-135

<sup>33</sup> 충청남도지사(2019) 충남사회지표(종합편). 충청남도청 (2019.12)

[기사참조]소수자 인권 · 다문화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필요(2020.4. 19)<sup>34</sup>



난민은 정착을 준비할 시간 없이 강제 이주했다는 특성과 난민인정 신청 이후 6개월 간 경제활동이 금지된 난민신청자 비자의 한계로 인해 수용국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인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이유만으로는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는 난민 수용에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며, 자연스레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내국인들의 반난민정서도 강화된다. 하지만 난민수용에 부정적인 결과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 난민은 사회에 자산이 될 수 있다. 난민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전문성과 다양성은 수용국 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자국민 기피산업의 노동력을 충원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부족도 난민의 정착 이후에 귀화 및 인구재생산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수용국 사회에 기여할 때 난민 스스로도 이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선 난민은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회와 난민이 갖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sup>34</sup> “충남 외국인 비율 높지만, 인식은 부정적”.

디트뉴스 24(2020.4.19)<http://www.dtn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486>

## II. 참여와 사회관계 여건 개선 제안

### 1. 참여와 사회관계 저조 원인

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난민들이 자신의 고유의 속성을 가지는 것과 비호국인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통합되는 것 모두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문화적응,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개발, 본국에서 가진 경력사용, 한국사회 자산으로서의 기여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이민자들과 달리 보장되어있는 기간의 비자 형태가 아닌, 언제든지 불확실한 난민인정결과 여부에 따라 그들의 생활 자체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난민들이 비호국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항목에 90%이상이 ‘네’라고 답변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이민자(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과 다르게 이들은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비호국인 이곳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이 이곳에 머물고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림을 비호국에서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제한된 노동현장이 아닌 더 발전된 형태의 삶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 살아갈 기회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 볼 수 있다.

### 2. 난민과 지역사회간 소통 활성화 방안

#### 가.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 (1) 난민들의 고유 자산인 본국 음식, 또는 그들의 언어,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 장터, 축제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난민들의 장터, 만국 반찬 가게, 난민바자회 등)
- (2) 타운홀 미팅 : 난민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가 함께 듣고 상생할 수 있도록 소모임 활동을 제안한다.

(3) 난민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에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활동 및 농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한다.

## 나. 충남 도민들의 난민 자원활동 및 상생 인프라 구축

### (1) 적극적 지역주민들의 활동 독려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노력은 양방향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난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착이 지역 사회안에서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과 개인이 모두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에 힘쓰게 한다.

### (2) 지역사회와 난민의 접촉점 확대

1:1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의 일상문화 안내 등, 난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형성에 힘쓰게하고, 난민이 ‘난민’으로 여겨지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게 한다. 통역, 한국어 교육, 지역명소 안내, 봉사 등의 영역을 통해 시민들이 난민 자원활동을 통해 접촉점을 확대하고, 이해하게 한다.

### (3) 다양한 기관들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주민들이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시민감각을 키우기 위한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 대학생 대상 협력 프로그램 구성 및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스포츠, 한국어 교육, 음식교류, 생활 안내 등) 자원활동을 구성해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미 형성된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난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서 배부, 케이스 공유 네트워크 만들어 효율적으로 난민들을 돕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난민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다양한 난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도서관, 및 공공장소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장 결론

## I. 지역주민과 지역자산으로서의 난민

### 1. 지역주민으로서의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 가. 정착 및 사회통합

##### (1) 지원보다는 권리부여

사회통합이란 난민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각 방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희망과 삶을 재건하고,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용국이 난민을 환영하고 여러 필요에 부응하면서 상호 용납하고 조정하는 동적, 다면적, 계속적 과정이다.<sup>35</sup> 난민이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이므로 난민의 사회통합이란 지역사회통합이다.

지역사회통합의 첫 단계는 난민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인데 자립이란 지속가능하고 존엄한 방법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다. 난민이 자립하고 나아가 주류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와 권리를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 보장하고 이방인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난민은 다른 이주자보다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더욱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지원이 난민의 자립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지원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2) 사회복지 보다는 취업 자립

난민들이라고 무조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며 난민들의 기본적 필요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사회 및 국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책임과 주체가 기본적으로 누구인지에 따라 미국식의 민간주도 취업자립형과 유럽식의 국가주도 사회복지형이 있다.

---

<sup>35</sup> Mihaela Robila, Refugees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New York 15 – 16 May 2018, p.1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family/wp-content/uploads/sites/23/2018/05/Robila\\_EGM\\_2018.pdf](https://www.un.org/development/desa/family/wp-content/uploads/sites/23/2018/05/Robila_EGM_2018.pdf)

미국에서는 정착지원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가 단시간(3~6개월) 안에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하는 경제적 통합이며, 유럽의 사회통합은 언어 문화에 치중되어, 난민이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2년~3년 소요되고, 그동안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유럽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사회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정착에 실패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난민들이 국가의 짐이 되기 보다는 자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나. 게토화와 소외의 극복

### (1) 난민들의 공동체

난민들의 사회적 연결은 동일한 출신국 난민 간의 공동체 내적 결속(Social Bond)과 지역사회와의 외적 연결(Social Bridge)의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동일한 출신국 난민 간의 공동체 내부 조직과 결속(Social Bond)은 민족성과 문화나 종교의 특성에 따라 너무 강하고 배타적인 경우 게토화되어 사회통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지만, 너무 약하고 소극적인 경우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흩어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될 우려가 있다.

### (2) 난민들과 지역사회의 연결

지역사회와의 연결과 소속(Social Bridge)은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연결되어 있는지의 문제로서 난민의 사회통합, 난민과의 소통 협력, 난민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통합 요소로서 난민들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장애를 제거하는 방향에서 모색될 수도 있고 난민들이 가진 자산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난민의 유입은 수용국의 우호적 태도여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국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므로 배척이 불가능하고 더욱 위험 부담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경우 사회불안이 가중될 뿐이고 기회비용이 커진다. 어차피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2. 지역자산으로서 난민의 지역사회 기여

### 가. 난민의 사회 기여

(1) 난민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며 주민들이 난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주민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은 우리사회에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고 난민의 수용 및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의 영역은 그들의 기본 자산인 언어와 농촌에서의 노동력이 아닐까 한다.

(2) 선주민과 이주민, 국민과 난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민이 단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난민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난민과 국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사회 기여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지역자산으로서의 난민

(1) 난민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인식되기 쉽지만, 난민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다양한 언어능력,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 노동시장 개혁 및 생산성 증진 동력,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라는 교유한 자산이 있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난민의 자산도 우리의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

(2) 난민들의 자산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영어는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도 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아랍어는 필요한 언어로 인식되지 못하고 아랍어가 모국어인 아랍 난민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들로부터 아랍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난민들의 출신국은 우리들이 가보지 못하고 가보기 어려운 지역들이고 난민들이 그곳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난민들로부터 그들의 출신국에 관하여 들으려 하지 않고 난민들에게 그들의 출신국과 문화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난민들에게는 건강한 육체가 있고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무슨 일이라도 할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일자리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난민들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다.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 II. 리빙랩 사업의 제안

### 1. 소통과 혁신의 난민캠프

#### 가. 난민 소통과 혁신 캠프

(1) 지역주민들이 난민을 이해하고 난민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며, 난민들 안에 있는 자산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리즈형 난민이해교육을 온라인 캠프 형식으로 준비한다. 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난민이해교육, 난민출신지역 이해 강좌, 세계시민교육을 개설한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협력하여 다문화특강을 기획하여 아이의 부모를 다문화 강사로 세우고 시리아, 예멘, 모로코, 이라크, 터키 등 접해보지 못했던 본국의 음식, 언어, 문화, 놀이에 대해 이야기 듣고 체험하는 다문화요리교실, 세계시민 교육을 제안한다. 사단법인 피난처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발전시키되, 일반 주민뿐 아니라 지역의 청년이나 활동가를 발굴하여 난민고충상담, 난민가정방문 등 전문적인 난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로 양성한다.

(2) 지역의 난민들의 수요인 한국어 교실, 운전면허취득, 자신의 언어 전공 등 재능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 노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법 등에 관한 난민대상교육도 함께 준비한다. 주민대상 난민캠프에 난민들이 참관하고, 난민 대상 난민캠프에 주민들이 참관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방법을 개발한다.

(3) 소통과 혁신 본부를 사단법인 피난처 또는 난민들의 아지트에 설치하고 난민과 주민이 소통하고 혁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난민전문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난민커뮤니티가 함께 혁신 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난민들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난민들의 문화와

자산을 지역자산화하는 혁신사업을 발굴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난민들과 주민들을 연결하고 난민들과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바일 사업을 기획한다.

## 나. 난민 노동과 언어 캠프

(1) 캠프 말미에 주민들과 난민들이 함께 마을의 시설 보수, 농촌 활동, 봉사활동 등 몇 가지 활동을 몇 개소의 지역에서 준비하여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준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난민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난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연결(Social Bridging)되며,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정규적인 일자리가 없는 난민들이나 집안일 때문에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난민들에게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후원에 의한 소득 구조가 마련되면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다.

(3) 난민 언어캠프 또는 다국어 학당을 개설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랍어 등 난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통·번역언어지원본부를 개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난민들에게 알림장 등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외고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 2. 난민들의 아지트

### 가. 사회 주거

(1) 천안, 아산이나 논산, 금산 등 배후지에 공장이 있는 농촌지역에 농가를 몇 채 얻어서 난민들이 임시주거하면서 주변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아지트를 만든다. 난민들만의 게토화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난민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터미널이 된다. 네덜란드의 사회주거 ‘스타트블록 리커하벤(Startblok Riekerhaven)’사례를 참고한다.

(2)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난민 개인이 보증금을 내고 개인주택으로 임차할 수는 없고, 운영주체(NGO와 난민커뮤니티 공동운영)가 임차 관리 운영하면서 난민들이나 이주민이 일시적 주거가 필요한 경우 거주하며 거주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를 분담한다. 이용하는 기간에 따른 이용료를 커뮤니티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커뮤니티가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관리운영비를 분담한다.

## 나. 농업개발

(1) 농촌지역에 위치하면서 거주하는 난민들이 지역의 농사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주변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일을 주로 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난민들도 잠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농사일을 한다. 농사일을 하면서 주변에 빈 농가나 농지를 얻어 마을을 만들어나간다

(2) 화분농업 등 스마트농업기술을 배운다. 소형 화분에 탁상용 야자, 수국, 올리브, 무화과 등 식물이나 화초를 재배할 수도 있고, 대형 화분에 대추, 사과, 포도 등 유실수를 재배할 수도 있다.

(3) 난민들의 고유 음식과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지중해샐러드, 치즈, 요구르트 등 다양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되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이 늘 즐겨먹는 우리 음식으로 개발한다.

## 다. 난민마을

(1) 난민 커뮤니티 센터 : 국내의 타 지역중 난민들이 대거로 주거하고 있는 서울의 이태원, 노량진, 경기도의 부천, 동두천, 양주, 안산, 평택 지역 등에 비하여 지역내 난민커뮤니티 활동과 문화공간이 취약하므로 지역 난민 이주민 공동 주거공간,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숙소, 커뮤니티 취업정보센터, 커뮤니티 도서관등 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중심이 되게 한다.

(2) 난민 문화마을회관 : 난민들만의 게토화 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난민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지역사회로 열린 난민문화마을로 자라게 한다.

(3) 장돌뱅이 공연단 : 난민문화공연팀을 만들어 충남사회혁신센터와 난민아지트를 중심으로 지역5일장 장마당을 장돌뱅이로 돌며 공연한다. 난민들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춤, 음식, 음료 등을 개발하여 결합한다.

## 참고문헌

### <보고서>

- 강진구, 이기성. (2019.04).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0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DOI : 10.15400/mccs.2019.04.30.103.
- 김규희. (2018). *Syrian Refugees in Amsterdam: A Look into Their Home Experiences and Home-Making Strategies*. n.p.: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 김현미, 이호택 외.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n.p.: 법무부.
- 손병덕. (2019). “제주 난민 사태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방안 제언”n.p.: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이호택 외.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n.p.: 법무부.
- Mihaela Robila. (2018). *Refugees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New York: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 Natalia Banulescu-Bogdan. (2020). *Beyond Work: Reducing Social Isolation For Refugee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Newcomer*.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andra Mateus, Filipa Pinho. (2018). “Welcome!”*Collection of good practices already existing for refugees’welcoming and first inclusion*. n.p.: PandPAS.

### <공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https://www.law.go.kr/>
-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 난민인권센터.(2020). 『2020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9.12.31 기준 국내난민현황』. p.22-24.
- 법무부.(2021.03.31).등록외국인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21년 4월, p.37: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1MkY1NDc5MjglMkZhcjRjbFZpZXcuZG8lM0Y%3D>
-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21년 4월, p. 38: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1MkY1NDc5MjglMkZhcjRjbFZpZXcuZG8lM0Y%3D>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04.20).2021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
- 법무부난민과.(2021). ‘충남 지역별 연령별 난민관련 통계’.사단법인 피난처 정보공개청구회신 (2021.3.18).
- 통계청.(2020).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0.12. 9.p.7-9.
- 국가통계포털.(2020).사회조사: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2018). <https://kosis.kr/>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9). ‘2019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종합편) SOCIAL INDICATORS OF CHUNGNAM 2019’: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320220&code=245&mnu\\_cd=STAMENU00073](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320220&code=245&mnu_cd=STAMENU00073)
-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019.11.1.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4&nttId=8078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4&nttId=80781)
-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ember 198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p. 3,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8f0.html> [accessed 20 June 2021]
- UNHCR. (September 2013). A NEW BEGINNING, Refugee Integration in Europe, Outcome of an EU funded project on Refugee Integration Capacity and Evaluation (RICE), p.9:  
<http://www.unhcr.org/52403d389.html>

## <언론기사>

- 심영구.‘[마부작침] ‘난민 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최초 공개 대한민국 난민 보고서①’  
2018 난민의 모든 것, All about난민. (2018. 07.07). Retrieved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8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8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허지영(시민리포터).(2019).‘요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모이세 문화강좌’ 음식 공감.  
천안아산신문(2019.10.31).<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접속일 2021.06.05)
- 안성원.(2020). ‘충남 외국인 비율 높지만, 인식은 부정적’. 디트뉴스24.(2020.04.19)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486>.(접속일 2021.06.01)

## <첨부 1> 설문지(국·영문)

### 충남거주 난민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Survey on Refugees Livelihood in Chungchungnam-do

이름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 1 체류 Status

1-A 성별 Sex: (Male, Female)

1-B 출신국 Country of origin:

1-C 거주지역 Place of residence: Asan, Boryeong, Buyeo, Cheonan, Chungyang, Dangjin, Gongju, Hongseong, Keryong, Nonsan, Seosan, Seochon, Taean, Yesan,

1-D 충남체류기간 How long have you stayed in Chungnam ?

1-E 체류자격 Visa status

1-F 결혼여부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G 자녀수 Number of children: ( ) boys, ( ) girls

#### 2. 취업 Employment

2-1 취업여부 Are you currently employed?

(① Yes; name of company: , ② No.)

2-2 주당근무시간 How many hours do you work per week? (0~60hours : )

2-3 한 해 동안 일한 직장의 수 Number of jobs you had in Korea last year.  
( 0 , 1 , 2 , 3 or more. )

2-4 월수입 What is your and your family income?

- My monthly earning is (0~5 million KRW: )

- My family income (0~10 million KRW: )

2-A 직장애로사항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in your current work?

Choose all that apply.

Subjects	Check	level of importance. (most important one is 1, then 2,3, etc.)
① 언어(작업지시이해곤란) Language barrier; inability to understand the guidelines for tasks		
② 관계(상사나 동료) Relationships with team leaders or Korean colleagues.		
③ 작업환경 High-risk work environment		
④ 근무시간 Long working hours; frequent night shifts and overtime works		
⑤ 힘든 일 Physical challenges (The job requires to stand all day, for instance.)		
⑥ 기타 Others(Unpaid salary, etc.)		

### 3. 교육 훈련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3-5 직업훈련 Have you received any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① Yes , ② No )

3-6 한국어교육 Have you attended Korean language classes?

(① Yes , ② No )

3-A 교육희망 What are the subjects that you wish to learn? Choose all that apply.

Subject	Check	level of importance. (most important one is 1, then 2,3, etc.)
① 한국어 Korean		
② 자동차 Driver's license and/or auto mechanic license		
③ 농업 Farming		
④ 컴퓨터 Computer		
⑤ 외국어 Foreign languages: English or French		
⑥ 한국사회와 문화 이해 Korean society and culture		
⑦ 취업 및 직장윤리 Job search tips and ethics in		



Korea		
⑧ 건강위생 Health and hygiene		
⑨ 자녀교육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in Korea		
⑩ 기타 :		

#### 4. 자녀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Questions only apply to those who have a child(ren).

4-7 교사면담 Have you spoken with the homeroom teacher about your child's general performance at school? (① Yes , ② No )

4-8 한국인친구 Does your child have at least one friend who is a native Korean? (① Yes , ② No )

4-A 학교이름 Is your child(ren) enrolled at a school?

(① If yes, write the name of the school: \_\_\_\_\_ , ② No.)

4-B 아동의 학교생활 School life of the child(ren).

Question	Yes	Somewhat likely	No
① 결석 Has our child been absent at school? (Reason: )			
② 교사관계 Does your child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homeroom teacher?			
③ 수업이해 Does your child follow the classes well?			
④ 원격교육 Distance education			

4-C 부모의 학교소통 Communications with the school community

Question	Yes	Somewhat likely	No
① 선생님과 소통 Do you communicate with the homeroom teacher?			
② 알림장 이해 Do you understand the announcements made by the homeroom teacher?			

③ 도움을 받을 곳 Do you have someone to ask for help when you don't understand the announcements?			
④ 다른 학부모와 소통 Do you communicate with other parents in your child's class?			
⑤ 아동과 소통 Do you speak with your child about his/her school life?			

## 5. 건강 Health

5-9 건강검진 Did you get a regular health checkup last year?

(① Yes , ② No )

5-10 병원예약 Can you make a doctor's appointment at a hospital?

(① Yes , ② No )

5-11 건강보험 Do you have a health insurance plan (private or public)?

(① Yes , ② No )

5-12 치과진료 Did you get a general dental exam last year?

(① Yes , ② No )

5-A 현재 아픈 곳 Do you have any illnesses in general?

(① Yes, name of illness; , ② No )

5-B 스트레스 What are you the most stressed about in your life in Korea? Choose all that apply.

Subject	Check	level of importance. (most important one is 1, then 2,3, etc.)
① 건강 Health related issues		
② 돈 Financial issues		
③ 언어 Language barrier		
④ 직장 Issues at workplace		
⑤ 자녀양육 Childcare and education		

5-C 의료기관 이용 애로점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of using medical services?

Choose all that apply.

Subject	Check	level of importance. (most important one is 1, then 2,3, etc.)
① 치료비 I can't afford to pay for the medical treatment.		
② 일 I will lose my job if I receive the medical treatment.		
⑦ 건강보험 I have not pai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months.		
⑧ 병원 I don't know where I can receive medical services.		
⑨ 언어 I can't explain my health conditions in Korean.		
⑩ Others:		

5-D 코로나진단 Did you get a COVID-19 test ?

(① Yes, If Yes, the result of the test - Positive, Negative,

② No )

## 6. 주거 Housing

6-13 주거형태 What is your housing situation?

① 노숙 Homeless

② 쉼터 Shelters

③ 친구,친척집 Homes of friends or families

④ 월세 I live at a rented house.

⑤ 공장 기숙사 I live at company dormitory

6-14 방이 몇 개? How many bedrooms are at your place? ( )

① Deposit: ( \_\_\_\_\_)KRW

② Monthly rent: ( \_\_\_\_\_)KRW

③ Number of cohabitants: ( ) people

6-15 주거지원 Do you get any assistance for paying your rent or housing?

(① Yes , ② No )

#### 6-A 주거환경 Living situation

Question	Yes	Somewhat likely	No
① 집주인과 문제 Have you experienced any conflict with your landlord?			
② 이웃과 마찰 Have you experienced any conflict with your neighbors?			
③ 마켓 Do you have a community store/market for foreigners that is accessible from your place?			
④ 대중교통 Are subway or bus stations accessible from your place?			
⑥ 통근시간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place to your work? (        )hour(s) (        )minutes.			

#### 6-B 주거관련 희망사항 Suggestion on housing (please explain in detail)

### 7. 소속과 정체성 Belonging to ethnic origin

7-16 동족간 교류 Do you meet people who share the sam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you? (① Yes , ② No )

7-17 동족간 정보 Do you have an access to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munity in Korea that have the sam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you?  
(① Yes , ② No )

7-18 동족 문화행사 참여 Have you participated an event (march, parade, or festival) that celebrates your culture? (① Yes , ② No )

7-A 동족 소속감 Do you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your ethnic community in Korea? (① Yes , ② No )

7-B 동족 종교행사 참여 Do you regularly participate your ethnic religious event in Korea? (① Yes , ② No )

7-C 동족이나 가족과 연락 방식? What is your main communication tool in your community and family (Telephone, Email, Facebook, Whatsapp, Telegram, Other)

## 8. 한국사회 정착 Integration into Korea

8-19 한국인과 교류 Do you meet and spend time with Korean people?

(① Yes , ② No )

8-20 한국생활정보 Do you have an access to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about living in Korea? (① Yes , ② No )

8-21 한국문화행사참여 Have you attended an event of Korean culture in Korea?

(① Yes , ② No )

8-22 고민상담 Do you know a Korean(s) whom you can openly speak with when you feel distraught? (① Yes , ② No )

8-23 직업재정상담 Do you know a Korean(s) whom you can consult with regarding your jobs and financial situation? (① Yes , ② No )

8-24 한국인친구 Do you know a Korean(s) who can help you with general things in your life in Korea? (① Yes , ② No )

8-25 한국인집방문 Do you have a Korean(s) who has visited your house or has invited you to their place? (① Yes , ② No )

## 9.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9-26 한국어 수준 How well do you speak Korean?

② None.

① I know a few words in Korean.

② I know a few phrases in Korean. I can buy things at a market.

③ I use some Korean with my friends and/or at my workplace.

④ I am fluent.

9-27 한국인과 정기 대화 Do you regularly communicate with people who speak Korean?

(① Yes , ② No )

9-A 가족 친구와 대화 언어 What language do you use when you communicat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① I only use my native language.

② I mostly use my native language, and use some Korean.

③ I use both languages equally.

④ I mostly use Korean.

⑤ I only use Korean.

9-B 자녀와 의사소통 Do you have trouble communicating with your child(ren) due to language difference?

Language difference	① None	② A little	③ Some what	④ Big	⑤ Very big
① Language difference in Korean					
② Language difference in the native language					

9-C 한국어교육관련 제안 what can be improved in the Korean studies program that you participated?

9-D 한국어교육 참가의향 If supported, will you join groups for practicing Korean – i.e. reading Korean books or speaking in Korean? (① Yes , ② No )

9-E 통역서비스 If the Korean translation service is made available, will you use it? (① Yes , ② No )

9-F 한국음식 What are the Korean dishes that you like (or eat often)?

라면, 삼겹살, 비빔밥, 짜장면 불고기, 갈비탕, 김치찌개, 떡볶이...etc.

## 10. 안전 Safety

10-28 집에서 안전감 I feel safe when I am home. (① Yes, ② No )

10-29 밖에서 안전감 I feel safe when I am outside. (① Yes, ② No )

10-30 소방서 전화번호 Do you know the number of the fire station?

(① Yes , ② No )

10-31 범죄피해경험 Have you experienced any crime (assault, robbery, vandalism or other forms of threat/violence)?

(① Yes , ② No )

10-32 차별경험 Do you experience discriminations based on your race and ethnicity?

① Daily ② Very often ③ Regularly ④ Sometimes ⑤ Rarely ⑥ I don't know.

## 11. 참여 Social participation

11-33 단체활동 Have you joined or participated in meetings organized by communities, organizations, or agencies in Korea? (① Yes, ② No)

11-34 봉사활동 Have you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works in Korea?  
(① Yes , ② No )

11-35 난민인권 Have you participated in the events that advocate rights of refugees in Korea? (① Yes , ② No )

11-36 시민권취득계획 Do you intend to apply for a Korean citizenship?  
(① Yes , ② No )

## 12. 제안 Suggestions

12-A 장래희망과 실현 What are your goals or dreams in your life? What activities (education/training, college studies, self-initiated studies, etc.) are you involved to achieve them?

12-B 좋은/나쁜 지원경험 Was there a positive or negative support experience in Korea? Describe your experience.

12-C 생활상의 핵심적인 애로사항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당신의 제안What is your other suggestions about your problem and solutions?

---

신 승 혜 영어 통·번역

전자메일 toseunghye@gmail.com

(현) 이사, (재)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현) 이사, (사)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홍보위원장

(전) 컨설턴트(Consultant), 서울시정책컨설턴트(국제협력, 전자정부)

(전) 대한적십자사(Korean Red Cross) 기획, 홍보실, 감사실 外 근무

(전) 한국대표단(Delegate), 캄보디아적십자사(Cambodian Red Cross) 파견

<첨부 2> 설문지(아랍어)

مسح حول سبل عيش اللاجئين في تشونغتشونغنام-دو

اتصال :

الاسم:

1. حالة الإقامة

1-A. الجنس: (رجال ، نساء)

1-B. بلد المنشأ :

1-C. مكان الإقامة:

Asan, Boryeong, Buyeo, Cheonan, Chungyang, Dangjin, Gongju  
Hongseong, Keryong, Nonsan, Seosan, Seochon, Taean, Yesan

1-D. منذ متى وانت مكثت في تشونغتشونغنام-دو؟

1-E. حالة التأشيرة :

1-F. الحالة الاجتماعية: (متزوج ، أعزب)

1-G. عدد الأطفال: ( ) أولاد ، ( ) بنات

2. العمالة والاكتفاء الاقتصادي

<العمالة>

2-1. يعمل حالياً؟

( ① نعم; اسم الشركة: ، ② لا )

2-2. ساعات العمل في الأسبوع

( : 0 ~ 60 )

2-3. إجمالي عدد الوظائف في كوريا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 0 ، 1 ، 2 ~ 3 ، 4 أو أكثر )

2-4. صافي الدخل الشهري لي ولعائلتي

( ، الدخل الشهري (0-5 مليون:

( دخل الأسرة الشهري (0 ~ 10 مليون :



## 2-A. ما هي بعض الصعوبات أثناء العمل؟

رتبة	علامة الدائرة	تصنيف
①		اللغة (لا يفهم تعليمات العمل)
②		صعوبات العلاقة (المشرفون أو العمال الكوريون ، إلخ).
③		بيئة العمل (العمل الخطير ، إلخ).
④		ساعات العمل (العمل الإضافي والعمل الإضافي كثيرة)
⑤		صعوبة في العمل (الوقوف والعمل طوال اليوم ، وما إلى ذلك)
⑥		آخر :

## 3. التعليم والتدريب

3-5. هل سبق لك أن تلقيت تدريبًا مهنيًا في كوريا؟

① نعم ② لا

3-6. هل حضرت فصل اللغة الكورية؟

① نعم ② لا

3-A. ما هو الفصل الذي ترغب في دراسته في مجال التعليم والتدريب؟

رتبة	علامة الدائرة	تصنيف
①		كوري
②		السيارة (القيادة ، الصيانة ، إلخ)
③		زراعة
④		كمبيوتر
⑤		لغة أجنبية
⑥		فهم المجتمع و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⑦		العمل وأخلاقيات العمل
⑧		الصحة والنظافة

⑨ نظام تعليم الأطفال الكوري		
⑩ أخرى:		

#### 4. تربية الطفل

\* تنطبق الأسئلة فقط على أولئك الذين لديهم أطفال.

4-7. هل سبق لك أن قابلت مدرسًا بالمدرسة حول تعلم طفلك؟

(1) نعم (0) لا

4-8. هل لطفلك صديق جيد واحد على الأقل من كوريا في المدرسة؟

(1) نعم (0) لا

4-A. هل طفلك في المدرسة؟ (مثال: اسم المدرسة؟) ، (0) لا

4-B. الحياة المدرسية لطفلك

الأسئلة	نعم	عادة	لا
① هل كنت غائبا من قبل؟ (سبب: )			
② هل تربطك علاقة جيدة بالمعلم في المدرسة؟			
③ هل تفهم الدروس المدرسية جيدًا؟			
④ التعليم عبر الإنترنت			

4-C. محادثة بين أولياء الأمور والأطفال حول الحياة المدرسية لأطفالهم

الأسئلة	نعم	عادة	لا
① هل تتواصل غالبًا مع مدرس طفلك في المدرسة؟			
② هل تفهم ما قاله مدرس المدرسة (إشعار)؟			
③ إذا لم أفهم الإشعار ، فهل هناك مكان أذهب إليه للحصول على المساعدة؟			
④ هل لديك أي تفاعلات مع آباء أطفال آخرين؟			
⑤. هل تتواصل مع طفلك بشأن الحياة المدرسية؟			

## 5. الصحة

9-5. هل ذهبت إلى المستشفى لإجراء فحوصات طبية منتظمة العام الماضي؟

(1) نعم (0) لا

10-5. هل تعرف كيف تحدد موعد للذهاب إلى المستشفى؟

(1) نعم (0) لا

11-5. هل لديك تأمين صحي؟

(1) نعم (0) لا

12-5. هل ذهبت إلى طبيب الأسنان العام الماضي لإجراء فحص أسنان؟

(1) نعم (0) لا

A-5. هل عادة ما يكون لديك مكان مؤلم؟ (1) نعم: أين تؤلم؟

(0) لا

B-5. هل لديك مشكلة تسبب التوتر بشكل خاص (قلق)؟

رتبة	علامة الدائرة	تصنيف
(1) صحة		
(2) الاقتصاد مشكلة مالية		
(3) لغة		
(4) مكان العمل		
(5) الأبوة والأمومة ، تربية الأطفال		

C-5. ما هي أهم أسباب صعوبة استخدام المؤسسات الطبية؟

رتبة	علامة الدائرة	تصنيف
(1) لعدم وجود رسوم علاج		
(2) لأنك إذا توقفت عن العمل ، سينخفض دخلك		
(3). بسبب متأخرات أقساط التأمين الصحي الوطني		
(4) لا أعرف مكان المستشفى		

		⑤ لأن التواصل اللغوي غير متوفر
		⑥ أخرى:

D-5. هل حصلت على اختبار COVID-19؟

(1) نعم - إيجابي ، سلبي , ⑥ لا

6. الإسكان

13-6. ما هو وضعك السكني؟

① بلا مأوى

② مأوى للمشردين / سكن انتقالي

③ منزل الأصدقاء / العائلة

④ أستاذ منزل / شقة

⑤ أنا أملك منزل / شقة

14-6. كم عدد غرف النوم في المكان الذي تعيش فيه؟ وما هو الوديعة والإيجار الشهري؟ (

15-6. هل حصلت على مساعدة من الحكومة لدفع الإيجار أو تكاليف السكن؟

(1) نعم ⑥ لا

A-6. بيئة سكنية

الأسئلة	نعم	عادة	لا
① هل سبق لك أن اختلفت مع المالك؟			
② هل سبق لك أن واجهت احتكاكات مع الجيران حول منزلك؟			
③ هل يوجد سوق أو سوبر ماركت قريب؟			
④ هل من السهل الوصول إلى وسائل النقل العام (مترو الأنفاق ، الحافلة)؟			
⑤ هل توجد أية مؤسسات عامة قريبة مثل مكاتب البريد والمكاتب البلدية؟			
⑥ كم من الوقت يستغرق الانتقال من المنزل إلى العمل؟ ( ) ساعة ( ) دقيقة			

6-B. اقترح على السكن

## 7. الروابط الاجتماعية

7-16. هل تقضي وقتًا مع أشخاص يشاركونك ثقافتك أو عرقك أو لغتك أو دينك؟

(1) نعم (0) لا

7-17. هل تصل إلى معلومات حول ثقافتك أو عرقك أو لغتك أو دينك؟

(1) نعم (0) لا

7-18. بعد مجيئك إلى كوريا ، هل حضرت أي احتفالات أو أحداث (مثل المسيرات أو المهرجانات) لنفس الثقافة أو العرق أو اللغة أو الدين؟

(1) نعم (0) لا

7-A. هل تشعر بالانتماء إلى مجتمعك العرقي في كوريا؟ (1) نعم (0) لا

7-B. هل تشارك بانتظام في حدثك الديني العرقي في كوريا؟ (1) نعم (0) لا

7-C. ما هي أداة الاتصال الرئيسية الخاصة بك في مجتمعك وعائلتك؟

(الهاتف ،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 ، Facebook ، Whatsapp ، Telegram .. الآخر ..)

## 8. الجسور الاجتماعية

8-19. هل تقضي وقتًا مع الكوريين وتشارك في ثقافة أو مجموعة عرقية أو لغة أو دين؟

(1) نعم (0) لا

8-20. هل تصل إلى معلومات حول الثقافات أو المجموعات العرقية أو اللغات أو الأديان الكورية؟

(1) نعم (0) لا

8-21. منذ قدومك إلى كوريا ، هل حضرت احتفالاً أو حدثاً للثقافة الكورية أو المجموعة العرقية أو اللغة أو الدين؟ (مثل مسيرة ، موكب ، مهرجان)

(1) نعم (0) لا

8-22. هل لديك كوريين يمكنك التحدث معهم إذا كنت منزعًا عاطفيًا؟

(1) نعم (0) لا

8-23. هل لديك كوريين من يستطيع نصحك في الوظائف والأمور المالي؟

(1) نعم (0) لا

8-24. هل لديك كوريون يمكنهم تقديم النصيحة لك حول كيفية إنجاز الأشياء في كوريا؟

(1) نعم (0) لا

25-8. هل لديك أصدقاء كوريون قاموا بزيارة منزلك أو زيارته؟

(1) نعم (0) لا

## 9. اللغة والثقافة

26-9. أي مما يلي يصف مهاراتك في اللغة الكورية بشكل أفضل؟

(0) عفوًا

(1) قليلا

(2) يمكنه التحدث عند التسوق أو القيام بأنواع أخرى من الأعمال.

(3) يستطيع التحدث في معظم المواقف الاجتماعية والعملية

(4) بطلاقة

27-9. هل تتحدث بانتظام مع أشخاص لغتهم الأولى هي الكورية؟

(1) نعم (0) لا

A-9. عند التحدث مع العائلة والأصدقاء ، ما هي اللغة التي تتحدث بها عادة؟

(1) تحدث فقط بلغتك الأم

(2) يتحدث معظمهم لغتهم الأم

(3) أتحدث الكورية ولغتي الأم نصف ونصف

(4) الكورية بصفة عامة

(5) تحدث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فقط

B-9. هل تواجه صعوبة في التواصل مع طفلك بسبب الفجوة اللغوية؟

فجوة اللغة مع الأطفال	(0) لا	(1) قليلا	(2) عادي	(3) كبير	(4) كبير جدا
(1) فجوة اللغة الكورية مع الأطفال					
(2) تفاوت في اللغة الأم مع الأطفال					

9-C. ما الذي يمكن تحسينه في برنامج الدراسات الكورية الذي شاركت فيه؟  
9-D. إذا تم دعمك ، هل ستتنضم إلى مجموعات لممارسة اللغة الكورية - أي قراءة الكتب الكورية أو التحدث باللغة الكورية؟ (1) نعم (0) لا

9-E. إذا توفرت خدمة ترجمة الكورية ، هل ستستخدمونها؟ (1) نعم (0) لا

9-F. ما هي الأطباق الكورية التي تحبها (أو تأكلها كثيرًا)؟  
رامين ، Samgyeopsal ، Bibimbap ، Jajangmyeon Bulgogi ، Galbitang ، Kimchi ، Tteokbokki ... إلخ.

## 10. السلامة والاستقرار

- 10-28. هل تشعر بالأمان عندما تكون في المنزل؟  
(1) نعم (0) لا
- 10-29. هل تشعر بالأمان عندما تكون خارج المنزل؟  
(1) نعم (0) لا
- 10-30. هل تعرف رقم الهاتف الذي يجب إبلاغ إدارة الإطفاء به في حالة نشوب حريق؟  
(1) نعم (0) لا
- 10-31. منذ قدومك إلى كوريا ، هل تعرضت لجريمة مثل الاعتداء أو السرقة أو التخريب؟  
(1) نعم (0) لا
- 10-32. منذ قدومك إلى كوريا ، هل تعرضت للتمييز العنصري أو الثقافي أو الديني؟  
(1) يوميًا (2) في كثير من الأحيان  
(3) بانتظام (4) في بعض الأحيان  
(5) نادرًا (6) لا أعرف.

## 11. المشاركة المدنية

- 11-33. هل شاركت في اجتماعات منظمات المجتمع أو النوادي أو الوكالات الحكومية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1) نعم (0) لا
- 11-34. هل تطوعت بوقتك لمنظمات المجتمع أو النوادي أو الوكالات الحكومية منذ العام الماضي؟

(1) نعم (0) لا

11-35. هل دافعت أو تحدثت عن حقوقك أو حقوق عائلتك علنًا و / أو أمام وكالة حكومية أو هيئة أو مكتب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1) نعم (0) لا

11-36. هل ترغب في أن تصبح مواطنًا كوريًا؟

(1) نعم (0) لا

## 12. اقتراحات

12-A. ما هي أهدافك أو أحلامك في حياتك؟ ما هي الأنشطة (التعليم / التدريب ، والدراسات ، والدراسات الذاتية ، وما إلى ذلك) التي تشارك فيها لتحقيقها؟

12-B. هل كانت هناك تجربة دعم إيجابية أو سلبية في كوريا؟ صف تجربتك.

12-C. ما هو اقتراحك حول مشكلتك والحل

---

아랍어 통·번역, 강 동 훈  
전자메일 oper8084@naver.com

(현) 간사, 사단법인 피난처  
(전) (사)아시아협력기구(IACD)-팔레스타인, 요르단 현지난민지원



### <첨부 3> 동의서(영문)

NO: 2021-

## INFORMED CONSENT FORM

The following explains the conditions of the survey and interview that Refuge pNan will conduct for its research.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as a subject, please fill in the appropriate box below.

**PURPOSE OF THE INTERVIEW/SURVEY:** IT AIMS TO ASSESS THE LIVING CONDITIONS OF REFUGEES, THEREBY IMPROVING THEIR LIVING CONDITIONS IN CHUNGCHEONGNAM-DO

**TIME REQUIRED FOR PARTICIPATION:** LESS THAN AN HOUR

**RISKS:** NONE

**CONFIDENTIA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 disclosed during the survey/interview – i.e. race, ethnicity, religion, etc. – will not be used other than for research purposes (academic or translational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 may be shared with other individual researchers or institutions directly/indirectly related with refugees. For instance, Chungnam Social Innovation Center,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for refugees may use the result of the survey/interview of this resea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interview/survey process or the research, feel free to contact:

Organization that conducts the research: Refuge pNan

Phone / Email: (02)871-5382 / pnan@pnan.org

Senior researcher

President of pNan Lee,

HoTaeg



Assistant researcher

Seunghye Shin



#### VOLUNTAR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completely voluntary. If you decide not to participate there will not be any negative consequences. Please note that even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may stop participating at any time, and you may decide not to answer specific questions.

By signing this form, I am attesting that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above and I freely give my consent/assent to participate or permission to participate.

Date Reviewed & Signed:

Printed Name :

Signature:

## <첨부 4> 동의서(아랍어)

NO: 2021-

### استمارة الموافقة المسبقة

فيما يلي شرح لظروف الاستطلاع والمقابلة التي سيتم إجراؤها من قبل Refuge pNan. إذا كنت ترغب في المشاركة كموضوع ، يرجى ملء المربع المناسب أدناه.

- الغرض من المقابلة / الاستبيان: يهدف إلى تقييم الظروف المعيشية للاجئين ، وبالتالي تحسين ظروفهم المعيشية في تشونغتشونغنام-دو
- الوقت المطلوب للمشاركة: أقل من ساعة
- المخاطر: لا شيء
- سرية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 لن يتم استخدام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للموضوع الذي تم الكشف عنه أثناء الاستبيان / المقابلة - أي العرق ، والعرق ، والدين ، وما إلى ذلك - بخلاف الأغراض البحثية (البحث الأكاديمي أو البحث المترجم).
- يمكن مشاركة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للموضوع مع باحثين أو مؤسسات فردية أخرى مرتبطة بشكل مباشر / غير مباشر باللاجئين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 قد يستخدم مركز الابتكار الاجتماعي تشونغ نام ، وهو مقدم خدمة خارجي للاجئين ، نتيجة استطلاع / مقابلة هذا البحث.

إذا كان لديك أي أسئلة حول هذه المقابلة / عملية الاستطلاع أو البحث ، فلا تتردد في الاتصال بـ:

- المنظمة التي تجري البحث: Refuge pNan
- الهاتف /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 02)871-5382 / pnan@pnan.org

Senior researcher  
President of pNan Lee,  
HoTaeg

Assistant researcher  
Seunghye Shin

المشاركة الطوعية:

المشاركة في هذه الدراسة تطوعية تمامًا. إذا قررت عدم المشاركة فلن يكون هناك أي عواقب سلبية. يرجى ملاحظة أنه حتى إذا قررت المشاركة ، يمكنك التوقف عن المشاركة في أي وقت ، وقد تقرر عدم الإجابة على أسئلة محددة.

من خلال التوقيع على هذا النموذج ، فإنني أقر بأنني قد قرأت وفهمت المعلومات الواردة أعلاه وأعطي موافقتي / موافقتي بحرية على المشاركة أو الإذن بالمشاركة.

تاريخ المراجعة والتوقيع:

اسم مطبوع:

التوقيع:

## <첨부 5> 난민지원단체 협력기관 목록

### ■ 교육 및 연구기관

번호	거점	거점운영기관명	주소	전화
1	충남 3	충남연구원 • 윤향희 책임연구원,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 윤정미 연구위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4
2	대전 1	건양사이버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899-3330
3	대전 2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교 62	042-253-7592
4	충남 1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국어문화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041-550-5417
5	충남 2	한서대학교(어학교육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 1로 46	041-660-1307
6	충남 3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041-730-5318

\* 상기 대학교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대전광역시/충남지역)으로 지정한 기관임

### ■ 2020~2021 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대전충남지역)

번호	거점	거점운영기관명	주소	전화
1	충남 1	(학)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글로벌교육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041-550-1070
2	충남 1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3층)	1577-8653
3	충남 1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 번길 70 (교육장소: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041-559-1301~9
4	충남 1	(학)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 1로 93 (교육장소:당진시 밤절로 149)	041-530-3044
5	충남 2	당진 YMCA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 1로 93 (교육장소:당진시 밤절로 149)	041-352-6400
6	충남 2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당진시 시청 1로 38, 종합복지타운 4층	041-360-3160

7	충남 2	서산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서산시 고운로 239, 3 층	041-664-2710
8	충남 2	태안군청(태안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교육장소:태안군 대안급 백화로 180)	041-670-2396
9	충남 2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75 번길 17	041-632-2007
10	충남 3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041-850- 6001~3
11	충남 3	공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 2 층	041-853-0881
12	충남 3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논산시 관촉로 277 번길 23-13	041-733- 7860~2
13	충남 3	세종시 이민다문화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 길 37	044-864-2982
14	충남 3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세종종합복지센터 2 층	044-862-9338
15	충남 3	금산군청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교육장소:금산군 금산읍 군청 5 길 35)	041-750-3990
16	충남 3	중부대학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041-750-6500
17	충남 3	부여군청 (부여군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041-830-2900
18	충남 3	서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8, 2 층	041-953-1911

\* 출처 :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법무부 공고 제 2019-399 호)

## ■ 민간 지원단체

번호	거점	거점운영기관명	주소	전화
1	충남 1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소장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203 호	041-541-9112
2	충남 2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대표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44 (2 층)	041-632-9722
3	충남 2	당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상현 사무국장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041-352-6400